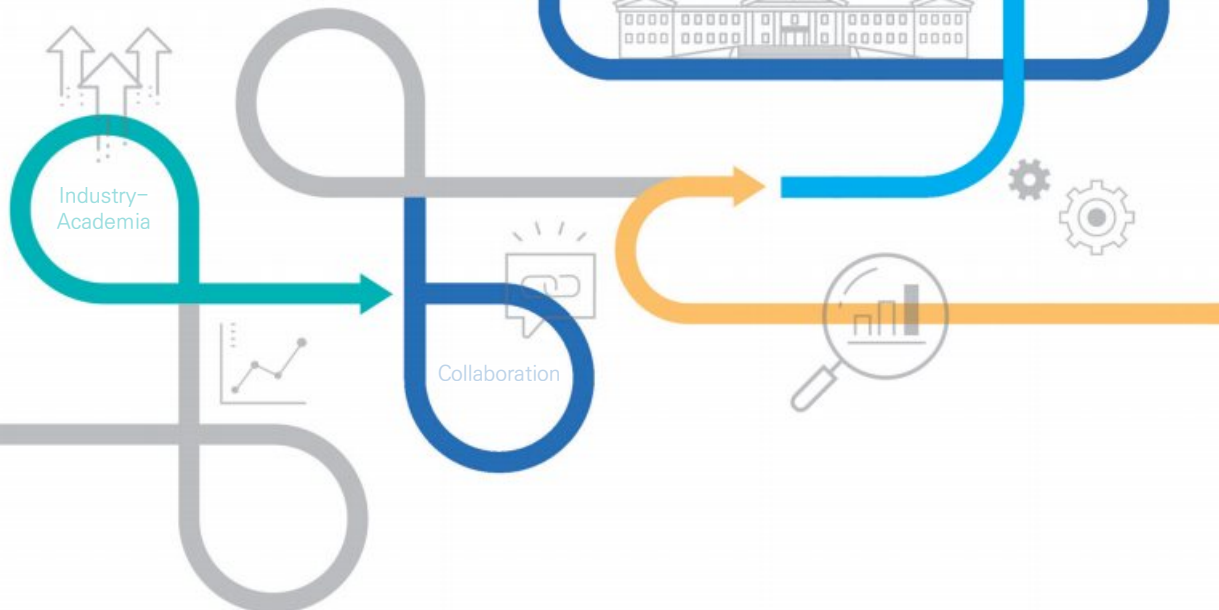


2024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



EUP

Extended **U**niversity **P**rojects



계명대학교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

EUP CONTENTS

▶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소개	04
▶ 2024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EUP) 프로그램	05
▶ 한눈에 보는 전공융합혁신사업(EUP)	06
▶ 전공융합혁신사업(EUP) 활동	08

계명ESG 활동 지원

경영대학 ESG 실천	08
ESG 국제통상 Hero	10
계코 E(계명 에코 ESG 캠페인 도전!)	12
지역사회 ESG 활성화 서포터즈	14
계명대학교 RCY ESG 봉사	16
새마을새빛동아리와 함께하는 계명ESG 활성화 프로그램	18

다문화· 취약계층 지원

나눔공동체와 함께 사랑 키우기	20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문화교육	22
외국인들을 위한 유학생활팁 a-z	24
청소년, 노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학생 대상 시민 안전 확보 활동	26
다문화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우리 함께 Level Up!"	28
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 증진 및 생활속 환경 운동 실천을 위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사전(알쓸생사)"	30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부모대상 심리지원 가이드 북 제작	32
찾아가는 과학교실	34
건강드림서포터즈	36
따뜻한끼 도시락 나눔	38
식품공학과의 건강 먹거리 나눔: 전통 발효식품 함유 이색 디저트	40
슈퍼시니어를 위한 알츠하이머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측정	42
청소년, 취약계층을 위한 식물심리치료	44
다문화가족 멘토링	46
아이사랑 마음 나누기	48
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재활 운동프로그램	50

다문화· 취약계층 지원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의 체력 증진 및 우울감 감소를 위한 운동 중재	52
약학대학, 마음으로 봉사하는 '心' 봉사	54
KAC 세르버스 레단 x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다락방>	56

초·중·고 교육 지원

논공초등학교 러시아어권 다문화 학생 학습 및 생활지원	58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60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동 축구교실 프로그램	62
유·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활성화 프로젝트(대구·경상)	64
대학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66
KAC 세르버스 레단 <레단스쿨>	68
미래를 밝히는 공학 캠프, 희망나무 교육 봉사단	70
일상생활 속의 친환경과 관련된 화학공학 기초 실험	72
지역 중·고등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속 소재를 활용한 재료과학 교육	74

인문예술 정신 확산을 위한 지원

가창중학교와 뮤지컬 만들기 프로젝트	76
연극뮤지컬이 함께하는 행복두드림교실	78
달서구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80
계명 엘 시스템아	82
문화소외계층 도자 예술체험 프로그램	84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두비 캐릭터 활용 일러스트와 웹툰제작	86
모두 함께 일하는 다문화 동화책 만들기	88

지역환경 개선

봉사동아리 '사랑그리기'와 함께 "사랑" 그리기	90
새 벼을 구하다	92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후 주거시설 환경개선	94
침산동 탄소중립 복합문화마을 만들기	96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 조성 프로젝트	98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마을 벽화 그리기	100

사회를 환히 밝히는 생각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에서 시작되다



계명카리타스봉사센터

사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다

청석으로 된 바위산을 깎아 학교를 세우고 이웃들에게 참된 소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설립된 계명카리타스 봉사센터는 오직 사랑과 헌신이라는 숭고한 마음으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힘과 지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계명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해오고 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봉사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감동적인 사회가 계명인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에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된 삶의 기쁨이 마음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아름다운 삶에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

지역협력센터

지역발전, 지역상생에 희망을 밝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호협력은 필수적인 테마가 되어가고 있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트렌드와 기술혁신 및 교육 인재를 제공하고 기업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바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윤택하고 여유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상호 노력하고 있다.

지역협력센터는 지역기업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산학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EUP) 프로그램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전문성과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혁신 프로그램을 기획, 발굴하고 이를 **지역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교류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프로젝트

목적 및 필요성

- 가** 대학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혁신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교 발전 목표인 '지역공동체에 공헌하는 지식플랫폼' 목표달성
- 나** 대학의 혁신을 지역의 혁신으로 유도하여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 담당
- 다** EUP의 국외 확산을 통해 '세계를 향해 빛을 여는 대학' 이념 실현
- 라** 지역 친화적 혁신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연계
- 마**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더불어 발전함으로써 대학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 확산

연도별 EUP프로그램 추진계획

- 가** 총 사업기간: 2020. 9. ~ 2026. 2.(5년 6개월)
- 나** 연도별 중점 추진 과제

구분	기간	목표
1기(도입기)	2020. 9. ~ 2022. 2.	EUP프로그램 시행 및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2기(정착기)	2022. 3. ~ 2024. 2.	협력체계 고도화 및 국외 지원사업 개발
3기(확산기)	2024. 3. ~ 2026. 2.	지역사회 봉사 확대 및 국외 지원사업 고도화

2024학년도 EUP프로그램 운영

- 가** 활동기간: 2024. 4. ~ 2025. 1.(10개월)
- 나** 참가 팀: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구성된 50팀 선발
- 다** 추진내용

연번	카테고리	주요 추진내용	프로그램수
1	계명ESG 활동지원	E(환경), S(사회), G(협치) 관련 교내외 활동 지원 등	6팀
2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및 장애우 등 지역 내 취약 계층에게 건강 멘토링, 한국어 교육, 심리상담 및 전공 관련 적정기술 개발 지원 등	20팀
3	초·중·고 교육 지원	초·중·고 대상 독서토론, 글쓰기 지도, 교육 멘토링 및 전공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9팀
4	인문예술정신 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인문학, 예체능 관련 체험 및 교육활동 지원 등	7팀
5	지역환경 개선	독거노인,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등	8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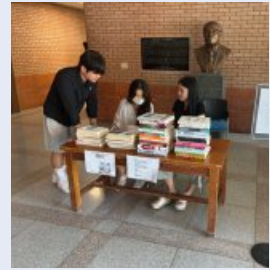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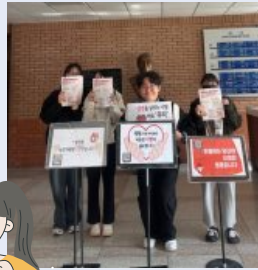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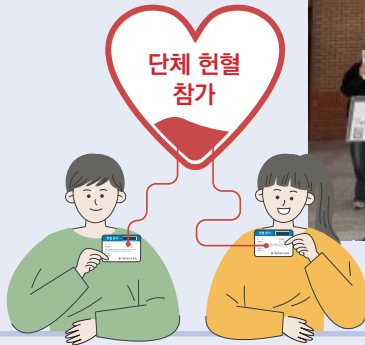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2024학년도

대분류	프로그램명	책임자	대표학생	
			학과	이름
계명ESG 활동지원	경영대학 ESG 실천	이형탁	회계학과	권용한
	ESG 국제통상 Hero	김민숙	국제통상학과	박성주
	계교 E (계명 에코 ESG 캠페인 도전!)	임태경	행정학과	국지에
	지역사회 ESG 활성화 서포터즈	김학윤	환경공학과	김정민
	계명대학교 RCY ESG 봉사	최해운	관광경영학과	임정현
	새마을새빛동아리와 함께하는 계명ESG 활성화 프로그램	주은정	화학공학과	주현석
다문화·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재활시설) 나눔공동체와 함께 사랑 키우기	김서준	기독교학과	이주현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문화교육	최정도	한국어교육과	이윤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경영대학 생활 팁: A to Z	문형은	관광경영학과	최진혁
	청소년, 노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학생 대상 시민 안전 확보 활동	김택수	법학과	김주아
	다문화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우리 함께 Level Up!”	조성숙	사회복지학과	김하늘
	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 증진 및 생활 속 환경 운동 실천을 위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사전(알쓸생사)”	박선영	사회복지학과	권현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부모대상 심리지원 가이드 북 제작	윤혜영	심리학과	나호준
	찾아가는 과학교실	이진영	생명과학과	이주예
	계명건강드림서포터즈	박천만	공중보건학과	정예림
	따뜻한끼 도시락 나눔	오세연	식품가공학과	김규연
	식품가공학과와 건강 먹거리 나눔: 전통 발효식품 함유 이색 디저트	신동민	식품가공학과	박채원
	지역사회 영양UP 교육봉사단	최정화	식품영양학과	조민경
	슈퍼시니어를 위한 알츠하이머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측정	이종하	의용공학과	오석준
	청소년, 취약계층을 위한 식물심리치료	최이규	생태조경학과	최하영
	다문화가족 멘토링	손순영	간호학과	손지모
	아이사랑 마음 나누기	김혜영	간호학과	박다민
	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재활 운동 프로그램	안나영	체육학과	김나은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의 체력 증진 및 우울감 감소를 위한 운동 중재	박주식	태권도학과	박병주
	약학대학, 마음으로 봉사하는 ‘心’봉사	정철호	제약학과	원성연

전공융합혁신사업 (EUP)

대분류	프로그램명	책임자	대표학생	
			학과	이름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KAC 세르버스 레단 X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다락방>	김수민	International Relations	이다경
초·중·고 교육지원	논공초등학교 러시아어권 다문화 학생 학습 및 생활 지원	변현섭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이준호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정상희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정다슬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동 축구교실 프로그램	조동욱	체육학과	김경민
	유·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활성화 프로젝트(대구·경상)	김종수	태권도학과	이윤극
	대학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정연준	도시계획학과	김준한
	KAC 세르버스 레단 <레단스쿨>	서정수	International Relations	이승민
	미래를 밝히는 공학 캠프, 희망나무 교육 봉사단	오현석	화학공학과	정윤주
	일상생활 속의 친환경과 관련된 화학공학 기초 실험	이열림	화학공학과	김태현
	지역 중·고등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속 소재를 활용한 재료과학 교육	전한솔	신소재공학과	오대경
인문예술 정신 확산을 위한 지원	가창중학교와 뮤지컬 만들기 프로젝트	강연종	연극뮤지컬학과	양세은
	연극뮤지컬이 함께하는 행복 두드림 교실	최두선	연극뮤지컬학과	배에진
	달서구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강진철	사회복지학과	윤예은
	계명 엘 시스템아	박미선	음악학과	최효리
	문화소외계층 도자 예술체험 프로그램	최유담	공예디자인과	배문주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두비 캐릭터 활용 일러스트와 웹툰제작	김동범	웹툰과	박재원
	모두 함께하는 다문화 동화책 만들기	최정도	한국어교육과	김서연
지역환경 개선	봉사동아리 '사랑그리기'와 함께 "사랑" 그리기	김명수	경제금융학과	박아현
	새 벚을 구하다	임정훈	문헌정보학과	양원준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후 주거시설 환경개선	안성진	건축공학과	오성진
	침산동 탄소중립 복합문화마을 만들기	김학윤	환경공학과	황유정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 조성 프로젝트	정해준	생태조경학과	장인석
	영유아 친환경 놀이공간 조성	박진욱	생태조경학과	민서영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주거시설 환경개선	박종만	시설안전팀	-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마을 벽화 그리기	석재혁	산업디자인과	방우진

경영대학 ESG 실천



활동 내용

전공서적 베품행사

전공서적 베품 행사는 4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2일은 전공책을 수거하고 나머지 2일은 나눠주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공책을 원활히 수거하기 위해 행정실과 협력하여 전공책을 기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텀블러를 나눠주어 학생들의 참여도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총 130여 권을 수집하였고 이들 동안의 의양관 로비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이 전공 서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120여 권의 책들을 나눠주었습니다.

의양관 에너지 및 안전 지킴이

의양관 에너지 및 안전 지킴이 활동은 의양관 내에 빈 강의실에 불이 켜져 있거나 빔프로젝터가 켜져 있을 때 전원을 끄는 활동과 쓰레기 줍기 및 의양관 주변 순찰과 분실물이 발생하였을 때 경영대학 인스타그램에 올려 분실물을 찾아 주었습니다.

단체 헌혈 참가

단체 헌혈 참가 활동은 경영대학 학생들의 헌혈 참가를 높이기 위해 경영대학 인스타그램과 각 학과 공지방을 통해 홍보를 하였고 헌혈 차가 오는 날에는 의양관 로비에서 직접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외국인 학생 플로깅 캠페인

내외국인 학생 플로깅 캠페인은 경영대학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같이 플로깅을 하는 활동으로 정문조, 동문조 2개 조로 나눠서 진행하였고 각 조마다 지정된 구역을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플로깅이 끝난 후 종류에 따라 분리 수거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전공서적 베품행사 사용하지 않는 전공서적들을 재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소비를 할 수 있었고 값비싼 전공서적들을 나눠줌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줘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의양관 에너지 및 안전 지킴이 의양관 내에 안 쓰는 에너지를 줄여 전기 소모를 줄일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건물 내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단체 헌혈 참가 경영대학 학생들의 헌혈 참가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EUP 참여를 하는 학생들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헌혈을 진행한 결과 1학기 대비 헌혈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외국인 학생 플로깅 캠페인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평소 친해지기 어려웠던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플로깅 활동을 통해 교류하고 계명대학교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이번 한 해 동안 EUP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학생회장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고 바쁜 1년을 보냈습니다. 학생회장 일과 ESG 경영 대표 학생으로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하여서 부듯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공서적 베품시장, 의양관 에너지 및 안전 지킴이 활동, 단체 헌혈 참가, 그리고 내외국인 학생 플로깅 캠페인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활동들이었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학생 교류,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라는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공서적 베품행사는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전공서적을 나누어주는 행사로, 총 4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2일 동안 전공책을 수거하고, 나머지 2일 동안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실과 협력하여 책을 기부한 학생들에게 텀블러를 증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총 130여 권의 전공서적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동안 의양관 로비에서 전공서적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최종적으로 약 120여 권의 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값비싼 전공서적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 행사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의양관 에너지 및 안전 지킴이 활동은 대학 내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활동이었습니다. 빈 강의실에 불이 켜져 있거나 빔프로젝터가 작동 중인 경우 전원을 꺼서 에너지 소모를 줄였으며, 의양관 주변을 순찰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더불어 분실물이 발생했을 때는 경영대학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식을 전하며 물건의 주인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건물 내에서의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도록 유도한 점도 큰 성과였습니다.

단체 헌혈 참가 활동은 학생들의 헌혈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경영대학 인스타그램과 각 학과의 공지방을 활용하여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 차가 오는 날에는 직접 유인물을 나눠주며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EUP 참여 학생들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헌혈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본모기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1학기 대비 헌혈에 참여한 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학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내외국인 학생 플로깅 캠페인은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 보호와 교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이었습니다. 정문조와 동문조 두 개의 조로 나뉘어 캠퍼스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 후 수거한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플로깅을 통해 평소 교류가 적던 내외국인 학생들 간의 관계가 가까워졌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대학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단순히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전공서적 베품행사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의양관 에너지 및 안전 지킴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단체 헌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그리고 내외국인 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교류와 환경 문제 해결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들이 경영대학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미래의 학생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SG

국제통상 Hero



활동 내용

1학기부터 2학기까지 Eco-Hero 팀은 봉경관 주변 환경과 쓰레기통 정리를 통해 주요 시설, 특히 과방의 환경을 크게 개선했으며, 빈 강의실 소등과 전자기기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전력 절약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통해 60여 명의 학생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를 생활화하며 환경 보호에 동참했습니다. 1학기 휴가철 직전에 활동한 비치 플로깅 캠페인에서는 20명의 참여자가 하루 동안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긍정적인 환경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Net-

Zero를 향한 발걸음'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부근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캠퍼스 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장기적인 실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진행된 에코백 기부 행사에서는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약 50개의 방치된 에코백을 기부하며 자원의 선순환을 실천했고, '일상 속의 ESG' 캠페인을 통해 참여자들이 순환경제와 재사용 실천 방법을 배우며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성과

Eco-Hero 팀 활동

- 주변 환경과 봉경관 쓰레기통 및 주요 시설, 특히 과방의 환경을 크게 개선
- 빈 강의실의 소등과 전자기기 점검을 통해 봉경관의 불필요한 전력을 절약

텀블러 사용 캠페인

- 일회용 플라스틱 컵 약 60여개 절약
- 캠페인 이후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텀블러를 구비하며 환경 보호 실천을 생활화

비치 플로깅 캠페인

- 약 200L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며 건강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
- 마을 주민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

Net-Zero를 향한 발걸음

- 학교 부근을 걸으며 10L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
-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의 일상 탄소배출량 체험

에코백 기부 행사

-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 약 50개를 기부

일상 속의 ESG 캠페인

- 재사용 및 순환경제 실천 방법을 교육
-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활동 소감문

이번 1년 동안 진행한 다양한 환경 관련 봉사활동을 되돌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고 느낍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큰 자부심으로 남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며 실천을 통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봉경관 Eco-Hero 팀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경 유지팀과 에너지 절약팀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각 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봉경관 내 청결도와 에너지 소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환경 유지팀에서는 주변 환경과 쓰레기통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조금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에너지 절약팀에서는 강의실 소등과 전자기기 점검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는데,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학교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텀블러 사용 캠페인’은 환경 보호의 기본이자 중요한 실천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많이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많은 학생들이 텀블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보며 작은 변화라도 실제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었고, 환경 보호에 대한 교내 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비치 플로깅 캠페인’은 또 다른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부산 해수욕장에서 해양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통해,

단순히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고 운동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면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자연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Net-Zero를 향한 발걸음’ 행사에서는 캠퍼스 부근을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고 걸으면서 지역 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평소 걸어서 가던 길이 아닌 길을 다시금 느끼며 주변 환경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에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의 ESG’ 행사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ESG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ESG 활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에코백 기부 행사’에서는 집에 방치되어 있던 에코백들을 교환하고 기부하며 자원을 순환시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원의 재사용과 순환 경제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에코백을 나눠드리는 기쁨이 참 좋았습니다.

이번 활동들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실천이 단순히 특정한 행사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해야 하는 가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공동의 노력임을 깨달았고, 이번 활동들이 그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코 E (계명 에코 ESG 캠페인 도전!)



활동 내용

전공융합혁신 EUP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계코 E팀은 1학기에는 비슬산에서 등산 플로깅과 제로웨이스트 샵 탐방, 2학기에는 EM 휴공 던지기 및 금호강 플로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비슬산 플로깅 활동은 등산과 환경보호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비슬산 등산을 하면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산하면서 분리수거를 완료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로웨이스트 샵 방문은 대구 수성구의 제로웨이스트 샵 '에쓰'를 찾아가 친환경 리사이클링 제품과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게 운영자와의 대화를 통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EM 휴공 던지기과 금호강 플로깅은 하천 정화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팀원들과 직접 제작한 EM 휴공을 발효한 후 금호강 하류에서 시민들과 함께 던지며 하천 오염물질 제거와 수질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휴공을 던진 후, 금호강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며 환경 정화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EM 휴공의 역할과 의미를 공유하며 활동의 가치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협력 프로그램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환경 퀴즈, 간이 정수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키링 만들기를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며 재활용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었고, 환경 퀴즈와 실험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ESG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주요 성과

계코 E팀은 2024년 전공융합혁신 EUP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ESG 실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확산시켰습니다.

- **비슬산 등산 플로깅:** 생분해성 봉투를 활용해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정화와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 **제로웨이스트 샵 방문:** 제로웨이스트의 개념과 운영 방식을 배우며 친환경 소비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한계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산할 아이디어를 모색했습니다.

- **EM 휴공 던지기 및 금호강 플로깅:** EM 휴공 제작 던지기 활동을 통해 수질 정화에 기여했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활동의 의미를 알리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의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금호강 플로깅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협업:**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키링 제작, 환경 퀴즈, 간이 정수기 만들기 등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아동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과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ESG 가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활동 소감문

[국지에 - 행정학과]

1년 동안 팀장을 맡고 따라와 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팀장이라는 자리가 처음이라 부담감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활동 과정에서 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 덕분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태경 교수님의 다양한 조언과 격려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활동 전반에 걸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의 복잡함, 팀원들 간의 시간 조율,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러 난관을 마주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팀원들과 더 나은 해결책과 협력 방법을 고민하며 한 걸음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학과가 모인 팀의 특성을 살려 각자의 전공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기획한 점은 저희 팀만의 강점이었습니다. 끝으로, 1년 동안 팀원들과 함께 한 EUP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건 - 행정학과]

EUP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경험으로 다양한 시각을 얻게 되어 좋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팀원들과 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를 맡으면서 효율적으로 자금관리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ESG활동을 하면서 이웃들이나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고맙다”, “기특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 되게 뿌듯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인원이 수가 적어 다른 팀보다는 원활한 진행이나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지만, 소수의 인원으로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팀장의 꾸준한 소통으로 덕분에 활동 추진력을 도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기 - 독일유렵학과]

전공융합혁신 EUP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배우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팀원들과 깊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팀으로 진행해 제약도 있었지만, 계획한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의 지속적인 소통과 총무님의 꼼꼼한 예산 관리가 큰 힘이 되었고, 학기 중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해준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활동을 지원해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활동이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최문호 - 화학공학과]

EUP 프로젝트를 통해 ESG 경영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직접 탐구하며 큰 의미를 얻었습니다. 환경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현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환경 보호 활동을 실천하며 SNS와 현수막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조원 간 시간 조율과 의견 충돌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화와 리더십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주도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등 한층 성장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임현지 - 심리학과]

전공융합혁신사업(EUP) 활동을 통해 ESG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예산 사용 방안을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획했던 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생겨 2학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뜻깊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준 팀원들과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활동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한 첫 경험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ESG 활성화 서포터즈



활동 내용

• ESG 공부 공유 2회

ESG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실천 방법을 이해하고, 두 차례의 공부 공유를 통해 동료 학생들과 ESG 실천 방안을 논의함. 이를 통해 학생들은 ESG를 자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ESG 체험 및 공유

교내 리필스테이션 2곳 설치 (오산관) 학교 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리필스테이션을 설치,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장려
교내 강의실 천연 목제 가습기 설치 (오산관) 자연 친화적인 가습기 설치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
교내 플라스틱 뚜껑 수집(5월~8월, 3개월, 154개 수집 후 기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를 통해 재활용 활동을 실천
용기내 챌린지 체험 1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체험하며 ESG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심어줌

•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

플로깅 위한 현수막 가방 제작 재활용 가능한 현수막을 활용하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실천
플로깅 진행 대구 지역 산 2회, 경북 지역 바다 2회, 학교 및 공원에서 총 6회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를 촉진

• 지역사회 ESG 전달 활동

계명대학교 125주년 기념 E-Festival 부스 참여 ESG 관련 정보와 실천 방법을 소개하여, 지역사회 내 ESG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교내 ESG 실천 서명회 학생들이 ESG 실천을 약속하도록 유도하여 ESG 활동의 확산에 기여
대구 메이커 페스타 부스 참여: ESG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

• 낙동강 리빙랩 참여

총 4회의 개인 학습 및 공유 회의 낙동강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
낙동강네트워크 발표회 진행 낙동강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며 ESG 활동을 확산



주요 성과

교내 및 지역사회에서 ESG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플로깅, 리필스테이션 설치 등 지역사회 환경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

낙동강 리빙랩 및 E-Festival, 메이커 페스타 부스 참여를 통해 ESG 교육과 실천을 확산시키고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실천적 사례를 제시하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ESG 참여를 독려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됨



활동 소감문

ESG 활동에 참여하며, 저는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가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ESG라는 개념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졌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ESG 공부 공유는 이러한 깨달음을 다른 동료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ESG 실천이 단순한 개인적 노력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을 인식했습니다.

교내에서 진행한 여러 ESG 실천 활동 중 리필스테이션 설치와 천연 목제 가습기 설치의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장려하는 리필스테이션은 단순히 자원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학교가 환경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또한, 천연 목제 가습기를 설치하며,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통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플라스틱 뚜껑 수집과 용기내 챌린지 체험은 실천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였습니다. 세 달 동안 플라스틱 뚜껑을 수집하여 기부한 경험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작은 뚜껑 하나가 쌓이고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용기내 챌린지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행동을 체험하면서, 환경 보호는 우리의 작은 습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활동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플로깅 활동을 통해 자연 속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문제를 몸소 느끼고 해결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진행된 플

로깅은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헌수막으로 만든 가방은 단순히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접근법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ESG 활동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던 계명대학교 125주년 기념 E-Festival과 대구 메이커 페스타 참여는 ESG에 대한 저의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이 행사들에서 ESG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실천 방안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ESG 서명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 활동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을 넘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리빙랩 활동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학습과 실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개인 학습과 공유 회의를 통해 낙동강의 환경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발표회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우리 팀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 보호는 단순히 이론적인 학습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과 협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ESG 활동을 통해 저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이 개인의 몫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 속에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이러한 변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며, ESG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계명대학교 RCY ESG 봉사



활동 내용

4월 6일 토요일, RCY 단원들은 강정고령보 일대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진행하였다.

플로깅 활동으로 약 2시간 동안 하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총 20여 봉투의 쓰레기를 모았고, 미생물이 포함된 EM 흙공 300개를 하천에 투척하여 수질 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활동을 통해 환경 정화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꼈다.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을 맞아 RCY 연합 봉사단은 2.28 공원과 동성로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였다.

봉사자들은 50여 봉투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도심 환경 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병행하였다. 일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플로깅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활동은 시민들과 함께 봉사의 가치를 공유하며 도심 환경 개선에 기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10월 5일 토요일, RCY 단원들은 청도읍의 사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약 60명의 봉사자들이 5시간 동안 사과나무에서 약 6,000개의 사과잎을 제거하며 수확 준비를 도왔다. 농가와 소통하며 농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작물 하나에 담긴 정성과 노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단순한 노동을 넘어,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팀원들과 협력하며 성취감을 느낀 뜻깊은 경험이었다.

12월 21일 토요일, RCY 단원들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연탄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약 3,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팀원 간 협력을 통해 작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며 봉사자들에게 큰 보람과 성취감을 안겨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주요 성과

플로깅과 EM 흙공 투척 활동을 통해 강정고령보 주변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정화하였다. 약 20여 봉투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하천 주변의 오염을 줄였고, 미생물이 포함된 흙공 300개를 투척하여 하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였다. 이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2.28 공원과 동성로 일대에서의 플로깅 활동으로 총 50여 봉투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도심 환경 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봉사 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사과잎 제거 작업으로 농작물 품질 향상과 수확 준비를 지원하며,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농가와 소통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봉사자들은 단순한 노동 이상의 가치를 경험하며 협력과 성취감을 느꼈다.

약 3,000장의 연탄을 배달하며 저소득 가정의 겨울철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단원들은 팀원들과 협력하며 반복 작업의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활동은 봉사자들에게도 큰 보람과 의미를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활동 소감문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RCY 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내어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각 활동이 지닌 고유의 의미와 가치를 몸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플로깅, EM 흙공 투척, 농촌 지원, 연탄 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봉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4월 6일 - 강정고령보에서 진행된 플로깅과 EM 흙공 투척 활동은 제가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약 2시간 동안 모은 20여 봉투의 쓰레기가 지역 환경에 적지않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EM 흙공 투척 활동은 하천 수질 정화와 악취 제거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준비된 300개의 흙공을 던지며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흙공 사용법을 배우고 실제로 하천에 던지는 과정에서 단원들과의 협력과 단합을 경험하며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8월 15일 - 광복절을 맞아 진행된 2.28 공원과 동성로 플로깅 활동은 도심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던 점에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며 플라스틱, 음료수 병, 담배꽂초 등 다양한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플로깅 외에도 시민들과의 퀴즈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고, 봉사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5일 - 청도읍의 사과 농가를 돕는 활동은 농촌 봉사가 단순한 노동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약 60명의 봉사자가 함께 사과나무 잎을 제거하며 수확을 준비하는 과정은 반복적인 작업이었지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농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작물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 봉



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 주었고,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느낀 성취감은 봉사의 본질이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2월 21일 - 연탄 배달 봉사는 이번 활동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약 3,000장의 연탄을 저소득 가정에 직접 배달하며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가 3.65kg으로 사람의 체온과 같도록 맞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난방용 도구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연탄을 전달받는 가정에서 보여준 감사의 마음은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으며,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연탄을 옮기는 과정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협력의 과정이 봉사활동의 가치를 더욱 깊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RCY 봉사활동은 단순히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을 넘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과정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플로깅과 EM 흙공 투척, 농촌 봉사, 연탄 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와 지역사회 지원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통해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고, 누군가를 돕는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사회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봉사를 통해 얻은 경험과 깨달음은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마을새빛동아리와 함께하는 계명ESG 활성화 프로그램



활동 내용

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 먼저 학기 중에 교내에서 진행한 활동으로는 매년 진행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과 양말목 키링 만들기, 폐가죽을 이용한 카드지갑 만들기, 업사이클링 커피박 키링 만들기, 업사이클링 스텐실 파우치 만들기 등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인 ESG와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청결지킴이 활동, 장애인과 가족들이 성서캠퍼스 내에서 마라톤(걷기)을 하는 마중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때는 여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광복절 맞이 역사 교육과 해양생태계 교육을 진행하였고 교육뿐만 아니라 드래곤키 만들기, 바다유리펜던트 만들기 등 같은 교육과 관련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 활동도 다양하게 하였는데, 새마을회와 연계하여 EM 휴공 만들기, 농촌봉사활동(포만 정리, 모내기 지원, 체리 농가 수확 지원, 땅콩 캐기, 폐비닐 수거), 노인복지 회관 봉사(치매예방 교육,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고, 그 외에도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동성로에 가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커피박 키링 만들기, 양말목 걱정 인형 만들기 등 같은 ESG와 관련된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계명대학교 새마을새빛동아리로 활동하며 다양한 봉사와 환경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라오스 해외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신당동 일대 청결지킴이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노인복지기관 봉사활동 등은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실천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계명ESG 캠페인과 환경 정화 활동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고 단원들 및 참여자의 호응이 굉장히 높아 더 뜻깊었던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동아리의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었으며 활동을 준비하고 기획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팀워크와 리더십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하는 계명대학교 새마을새빛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 소감문

지난 한 해 동안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단순한 이론적 개념을 넘어 실제 생활과 업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ESG는 이제 단순한 기업의 경영 전략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임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자원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면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부터,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캠페인과 식물 재배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나의 작은 기여가 사회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큰 동기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ESG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ESG 활동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는 것을 실감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와 교훈을 바탕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와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눔공동체와 함께 사랑 키우기



활동 내용

유은복지재단은 장애인 재활, 자립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유은복지재단 소속 나눔공동체의 직업재활시설이다. 유은복지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물을 키우면서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도와주는 재단이다.

① 유은복지재단 직업재활시설의 직원 소개, 장애인 소개, 시설의 역사와 현황, 장애인들이 이 시설에서 하는 일, 재단에서 활동하는 여러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들은 후 담당자분께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이야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고민, 앞으로의 미래 등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며 대답을 듣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②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먼저 이곳에서 일하시는 센터를 청소했고 다음으로 이분들과 함께 새싹을 재배하고 분류하고 통에 담아가

지런히 정리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였다. 또 새싹을 기르기 위한 흙 포대를 나르며 심으면서 일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장애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깨끗하게 쓸고 닦으면서 더 나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가졌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주요 성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불편할 뿐인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땀 흘려 일했고 그 대가를 통해 보람을 누리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눔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산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배우고 실현할 수 있었다.

또,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시설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에 있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의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또, 복지재단의 다양한 사회공헌과 노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들과 함께한 시간은 더욱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은복지재단의 역사와 활동을 들으며 그들의 봉사에 감사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미약하지만 장애인 분들의 일거리를 덜어드렸고 시설 청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다.



활동 소감문

2024년 7월 1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유은복지재단 나눔 공동체에 방문해 직접 장애인 분들과 소통하며 그분들의 직업을 함께 체험해보고 도와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새싹을 재배하여 포장하고 납품하는 일이 주된 작업이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유은복지재단을 설립하신 목사님 내외분은 그 도움에 대한 남다른 통찰을 지니고 계셨다.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보완해 드리는 도움을 뛰어넘어 그분들이 직접 자신들의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게끔, 시력을 잃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눈이 되어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다른 몸의 기능을 활용해 삶을 이어 나갈 수 있게끔 장애인들에게 폭넓은 도움을 드리고 계시는 목사님 내외분의 행보에 많은 감동과 감명을 받게 된다. 심지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 번은 크게 실패해서 큰 고비를 겪게 되었음에도 딛고 일어서서 지금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유은복지재단을 설립하셨는데 그 정신력에 또 감탄하게 된다.

센터에 대한 이야기, 직원분들과의 대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일의 강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장애인 분은 오랜 기간 그 일을 해오고 계셨다. 아무런 장애가 없는 우리조차 힘들어하는 그 일들을 묵묵히 그리고 꼼꼼히 해오신 장애인 분들을 보며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 사회에서 그들이 최저임금,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유가 그들의 장애 때문이 아닌 사회의 시선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 센터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간다면 일을 하고 싶어도 수많은 제약이 있어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편협한 나의 색안경이었을 뿐이다. 봉사를 하며 장애인 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니 말을 안해도 손으로 소통이 가능해져 신기했다. 몸이 불편해도 스스로 자립해서 직업을 구해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었고 유은복지재단 같은 체계가 사회에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장애인들의 복지와 처우개선 등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해주고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안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었던 차별의 시선이 녹아 없어졌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의 삶은 울고 그름이 아닌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간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도움을 받고 여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있는 사회의 한 단면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요즘은 서로를 비난하고 거리를 두는 차가워진 사회를 살고 있다. 다른 사람을 살필 여력도 없어서 참으로 어지러운 사회라 볼 수 있다.

유은복지재단은 독특한 시설이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함께 일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이었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서로에게 향하는 미소가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 서로를 보는 모습을 보면 함께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곳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그런 따뜻함이 필요하다.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서로의 환경을 이해해주는 그런 따뜻함이 늘어난다면 사회는 다시 따스하게 바뀔 것이라 믿는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그분들의 행보에 조금이나마 발을 얹어 같이 걸어 봄은 아마 잊지 못할 귀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다.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문화교육



활동 내용

[라디오]

이번 라디오 프로그램은 외국인 참여자들과 중도입국아동청소년과 함께 '다양성이 갖는 아름다움'을 주제로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스태프와 게스트들이 모여 게스트 국가의 전래 동화를 읽으며 대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게스트들과 작가 팀이 모여 대본 리딩을 진행한 후,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주에는 라디오 방송을 촬영하고, 오디오 편집과 영상 편집을 하여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라디오를 송출하고 라디오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게시하였습니다.

[독서 교육]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업 전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위한 회의를 한 시간가량 진행하였습니다. 교사들은 도서관 내에 있는 도서를 한 권 선택한 다음, 어휘나 문법적 요소를 어떻게 교수하면 좋을지 논의한 다음, 수업 자료를 제작합니다. 이후 일주일간 수정 기간을 거쳐 완성된 자료를 실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였습니다. 학습자들과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어보다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라디오]

지역 내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 유학생과 더불어 중도입국아동청소년들의 배경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로부터 오는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었고, 다양성이 갖는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서 교육]

중도입국아동청소년들이 혼자 학습했으면 어려웠을 한국어를 교사들이 지도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자음과 모음을 모두 다 잘 적을 수 있고, 다양한 한국어 어휘들을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피력할 수 있을 만큼의 어휘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며 학습에 필요한 어휘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읽고 이해하여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또한, 단어 명사나 조사와 같은 한국어의 특징적인 문법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단어 간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을 매끄럽게 작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외국인들과 다양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독서 교육의 경우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독서 교육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라디오 활동은 외국인 참여자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다양성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통, 언어,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공감과 이해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구성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소개하거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외국인 참여자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접하면서 느꼈던 놀라움과 감동을 이야기했고, 다른 참여자는 자신의 나라에서 경험한 한국의 드라마 열풍에 대해 말하며 한국 대중문화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은, 다양한 목소리가 모일수록 대화가 풍부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서로가 가진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독서 교육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학습자들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과 관심사에 따라 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문법과 어휘를 배우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한국 전래 동화를 읽으며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읽으며 한국인의 가족관과 권선징악의 교훈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며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는 경험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한 때였습니다. 이 말은 저희 팀이 활동을 시작하며 품었던 비전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교육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점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배움의 기쁨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국어와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인과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자신들의 문화도 당당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와 독서 교육이라는 두 가지 도구는 언어와 문화를 연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성장해 나가는 계명인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유학생활립 a-z



활동 내용

1회차 (2024년 5월21일 14:00~15:00)

의양관 114호에서 21명이 함께하며 수페이페이툰 학우가 지난학기에 활동했던 유학생 프로그램(LCM)을 소개했다. 수페이페이툰 학우의 지난 학기 활동을 한국어로 공유하며 관광경영학과 신입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유학생들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2회차 (2024년 6월5일 14:00~15:00)

의양관 316호에서 11명이 함께하며 지난번 수강하지 못했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페이페이툰 학우가 지난학기에 활동했던 유학생 프로그램(LCM)을 소개했다.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생활 동안 언어, 문화, 전공에 대한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꾸린 학습 모임이었다. 총 10회 진행하였고 서로 나라의 문화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유학 생활의 고충을 공감하고 한국 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팁을 서로 공유하였다고 한다.

3회차 (2024년 6월11일 12:00~13:00)

의양관 327호에서 3명이 함께 앞서 진행한 두 번의 행사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질문들 및 반응과 발표 내용 등에 대해 피드백을 공유했다.

4회차 (2024년 12월6일 11:00~12:00)

의양관 315호에서 29명이 함께하며 응웬티엔동의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들을 수 있었다. 응웬티엔동의 학부시절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소개하여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 냈다.

주요 성과

1. 선배 유학생들의 사례 공유

선배 유학생들이 학부 시절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국제 교류, 학술 활동 등)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에게 유학 생활의 긍정적 가능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였다.

2.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

선배들의 경험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활발히 오가며 학생들이 유학 생활에 대해 새로운 동기를 얻을 수 있었다.

3. 유학생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신입생들이 교류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 제공하였다는 점이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4. 실질적인 도움 제공

한국 생활과 학업 적응에 필요한 팁과 정보를 공유하여 유학생들의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활동 소감문

2024년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수페이페이툰 학우가 진행한 유학생 프로그램(LCM)이야기를 들으면서 유학생들의 언어, 문화, 전공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모임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유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유학 생활의 고충을 나누며 한국 생활에 대한 유용한 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한국어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각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진행된 점도 참여자들에게 큰 만족도를 이끌어 냈고 설명을 들은 많은 유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페이페이툰 학우는 자신의 지난 학기 활동을 한국어로 공유하며 관광경영학과 신입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유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인 학생으로서 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과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된 두 번의 행사 이후 학생들의 질문과 반응과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피드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는지 향후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유학생 프로그램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더 나은 행사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차에서는 응웬티엔동 학우의 성공적인 유학생 활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응웬티엔동 학우는 학부 시절 3번의 인턴 경험, 홍보대사 바르미 활동, 유학생 기숙사 자치회장으로서의 활동 등 다수의 교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참석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유학 생활이 단순히 학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응웬티엔동 학우는 유학생 기숙사 자치회장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으며 한국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던 사례를 생생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인인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참석자들은 응웬티엔동 학우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유학 생활을 어떻게 더 알차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학생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국에서의 생활 적응을 돕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과 학업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동시에 한국인 학생으로서 유학생들과 함께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학습 모임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고 성장하는 데 큰 의미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학생들과 함께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노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학생 대상 시민 안전 확보 활동



활동 내용

법학과라는 전공을 살려 교내 및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 청년, 노년까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안전 보호 활동을 진행하였음.

상반기의 주된 활동은 온라인 활동의 일환으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전동킥보드 안전 활동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하였음.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카드뉴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자료 조사와 시장 조사를 하는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진행하였음.

하반기의 주된 활동은 오프라인 활동으로 지난학기에 다뤘던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참여형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였음. 전동킥보드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컵홀더를 제작, ‘한줄 다짐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활동에 필요한 회의, 자료조사, 디자인 시안 작업, 제작까지 모두 손수 진행되었음.

다음 활동인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타겟층인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음.

홍보 활동으로는 자체 제작한 홍보물, 리플릿을 가지고 두류공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교육의 필요성 등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보이스피싱의 심각성, 범죄수법, 문제해결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을 배부하며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음.

교육활동으로는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간단하게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론부터 보이스피싱의 수법, 범죄 예방 방법, 해결방법 등을 위주로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음.

주요 성과

1. 인스타그램 활동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카드뉴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카드뉴스
- 디지털 성범죄 중 팀페이크 포르노, 불법촬영 카드 뉴스
-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카드 뉴스 제작
- 전동킥보드 종류 및 인도주행의 4원칙 포스터 제작



2. 전동킥보드 컵홀더 & 포스터 제작활동

3. 보이스피싱 오프라인 홍보 활동

- 교외 두류공원 일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리플릿 배부와 설문조사 진행

4. 보이스피싱 오프라인 교육 활동

- 교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에 관한 안전 예방 방법 교육 진행





활동 소감문

본 전공융합혁신사업을 진행하면서 법학과로서 지역사회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인 활동이었고 같은 과 학생들과 함께 팀을 꾸리고 1년여간 활동을 진행하면서 함께 친해지고 서로 협력하여 팀 프로젝트를 해냈다는 점에 매우 만족했던 활동이다.

다양한 주제의 카드 뉴스를 제작하면서 전통키보드의 위험성과 문제의 유형, 과태료 등을 알아보고 디지털 성범죄 중첩페이커 포르노와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의 현황, 범죄수법, 해결방법 등을 알아보며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사람들이 문제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고 상기시킬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활동에 임하였다.

전통키보드 안전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포스터와 컵홀더를 제작·배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간결하면서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며 작업하였고 포스터의 배치와 색상 선택 등 창의적인 디자인 작업을 거쳐 완성시켰다. 활동을 하며 디자인조차 열심히 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작업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고 개인이 아닌 모두가 협력하였을 때 창의적인 의견과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전통키보드 컵홀더를 배부하면서 전통키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카페와 공공장소에 배포하여 더 많은 이들이 안전수칙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활동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예방, 대처 방안 등을 설명한 팸플릿을 제작하여 두류공원 일대를 돌며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와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예방, 대처 방안이 적힌 팸플릿을 배부하였고 모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으나 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해낼 수 있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 홍보와는 다르게 더 많은 양의 내용을 설명하고 휴대문 안전 설정 등을 해주면서 매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활동을 마치고 나서 팀 동료들과 '무사히 마무리 되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족한 시간과 설명임에도 열심히 들어 주었던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핸드폰 보이스피싱 방지 설정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었다는 생각에 부듯함을 느꼈다.

활동을 진행하고 팀을 이끌면서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을 이끌며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 활동이었다. 특히 대표로서 부족한 점을 계속 확인하고 채워나가며 팀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중요성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움직일 때 활동이 진행되고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팀원들 또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팀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 등 함께 생각하고 힘을 합쳐 결과물을 만들 때 개인이 보지 못하는 시각을 채워나가며 다차원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내 시각이나 사고를 채워준다는 경험을 했다고 말해주었다.

활동이 끝나고 1년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은 '다시하고 싶다'는 생각과 아쉬움이다. 경험이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법학과 특성상 팀 프로젝트보다는 개인적인 학습과 논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학문이 이루어지기에 개인적, 팀적 능력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전공융합혁신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같은 과 학우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학도로서 우리의 활동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법정단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이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동기가 되어 작용하였고 마지막까지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도와준 힘이 되었던 것 같다.

다문화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우리 함께 Level Up!"



활동 내용

다문화 아동에게 반복되는 성공 경험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고, 성장하며 겪을 수 있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관리 방법 및 감정 조절 방법',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긍정적 사고', '자기효능감'을 주제로 각 회기마다 다양한 놀이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자기효능감'을 주제로 자기 이해를 위한 나 사용 설명서 제작, 장점 나무 디퓨저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주제로 반려 식물 기르기, 스트레스 볼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성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증진

조별 활동, 만들기,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복적인 성공 경험을 쌓으며 자기효능감을 향상함.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는 아동들이 학교생활과 사회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줌. 더불어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기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개선

조별 활동과 협동 놀이를 통해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움. 비언어적 표현의 사용법을 습득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등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함

정서적 지지 제공

대학생 봉사자와 아동을 1:1 혹은 1:2로 매칭하여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봉사자와 아동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프로그램이 지속될수록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개인적 문제를 공유하고 유대감을 쌓음

학습에 대한 흥미 증진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개념을 놀이와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함. 놀이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함





활동 소감문

‘전공융합혁신사업(EUP)’을 통해 봉사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거나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 등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다문화 초등학생 1~6 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아동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놀이를 접목하여 아동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아동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본 프로그

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 회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 니다.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있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비록 언어적인 측면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비 언어적 요소로 대화를 하면서 언어적인 측면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문화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자 자신에게도 많은 성장 경험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느꼈고, 소통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매 회기 아동들의 반응을 통해 다음 활동을 수정해가면서 참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던 과정들이 사회복지 실천적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생으로서 미래에 실천 현장에서 다문화 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여가생활 증진 및 생활 속 환경 운동 실천을 위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사전 (알쓸생사)"



활동 내용

상반기 활동

4월 활동

- 대구 남구 대명동 정신 장애인 재활 시설 비곤과 협력하여 정신 장애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함
- 일상생활 속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생활용품으로 업사이클링(upcycling) 하는 주제로 ESG 활동과 공예 활동을 통한 정신 장애인의 여가생활 증진으로 선정함
- ESG 활동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ESG 개념, 분리배출의 중요성, 재활용품으로 업사이클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함

5월 활동

- 프로그램 모집 인원을 개방 집단 정하고 비곤 내 입소 회원, 이용 회원들에게 홍보 포스터와 프로그램 사전 안내 방식으로 프로그램 홍보를 실시함
- 프로그램 진행자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시설의 유의 사항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진행자 사전 교육을 실시함
- 프로그램에 활용될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하여 성서 계명대학교 캠퍼스 인근의 카페 및 남구 대명동 근처의 마트 등 다양한 업체를 방문해서 우유 팩, 종이 상자, 일회용 컵을 포함한 다양한 재활용품을 수거함

6월 활동

- 시설 내 첫 프로그램 활동의 하나로 프로그램 월별 계획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함
- 프로그램 세부적인 활동으로 ESG 교육 "생생 정보통"을 기획하여 ESG 교육 및 프로그램 취지에 대해 확립함
-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 (출처: 사회복지

지 공동모금회) 검사를 하여 일상생활 속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사전 검사함

- 업사이클링 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디퓨저 리필액을 이용한 디퓨저, 지구 모양 열쇠고리, 폐지를 활용한 부채를 제작함

8월 활동

-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일회용 컵과 우유팩을 활용하여 우유 팩 수납함, 일회용 컵 무드 등을 제작함
- 가구 정리 정돈 방법에 대한 토의와 레크리에이션(음악 맞추기)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의 친밀도를 높임
- 프로그램 중간 평가를 통해 하반기 프로그램 방향성 검토 및 하반기 활용 물품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하반기 활동

9월 활동

-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병뚜껑, 일회용 컵, 커피 컵 홀더, 신문지, 우유 팩 등 다양한 재활용품을 당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물품 기부 형식으로 후원 받음
-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여 상추 재배, 습기 제거제를 제작함
- 레크리에이션 활동(4글자 단어 퀴즈, 눈치껏 말해요, 초성 맞추기)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단체 단합력을 향상함

10월 활동

-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종이컵, 휴지 심, 우유 팩을 활용하여 종이컵 로봏팔, 휴지 심 휴대전화 거치대, 우유팩 탈취제를 제작함
- 레크리에이션 활동(날말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을 통해서 활동에 대한 집중력과 공간 파악 능력을 향상함



11월 활동

-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우유팩, 신문지를 활용하여 우유 팩 카드 지갑, 신문지 상자를 제작함
-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DIY 키트를 활용하여 목공예 활동과 생분해 비닐을 이용한 활동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탄소 중립 삼푸바, 티코스터를 제작함
- 레크리에이션 활동(주제에 관련된 단어 말하기, 다트 맞추기, 동서남북 단어 게임, 이름 대기)을 통해서 창의력 향상과 이해력을 향상함

12월 활동

- 프로그램 종결식을 통해 상·하반기 제작 물품 공유, 활동사진 및 영상 시청, 단체 사진 등등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활동을 마무리함
- 프로그램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소망 나무 만들기"를 기획하여 크리스마스 디자인의 트리를 제작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편지를 부착하여 활동 장소에 전시함
-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참여 소감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소감을 현장에서 직접 토론폰하며 프로그램 활동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함

활동 소감문

비곤 소감문

- ESG 교육 자료를 통해서 ESG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고,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생겨 환경 보호에 대해 지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
-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하고 새 활용 활동으로 실용성 있는 물품으로 제작해 보면서 창의적인 제품 활용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었음. 또한 재활용품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성을 학생들과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음
- 새 활용 활동으로 제작한 물품을 일상생활에서 지속해서 사용함으로 새 활용 물품에 대한 실용성을 느끼게 되었고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혼자서도 새 활용 물품을 제작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게 됨
-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게임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음
- 학생들과 협력하고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활동을 같이 준비하고 다양한 상황에

에 대처를 잘해주어서 고마웠음

-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현재 활동을 지속해서 활동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가 있음

아쉬운 점

- 제작한 일부분 물품들이 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짧아서 아쉬웠음. 상태가 변형된 물품을 보수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 새 활용 물품의 제작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어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난이도에 적응하기 어려운 물품도 있었음. 난이도를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였으면 좋았음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소감문

- ESG 활동을 통해서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활동에 대해 지속해서 고려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 정신 장애인들과 함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키우게 되었고 사회복지사의 역

할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음

-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원활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었고 정신 장애인들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어서 부듯한 시간이었음
- 상반기 활동에서는 새 활용 활동에 대한 난이도 조절과 친목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하반기 활동에서는 정신 장애인들과 소통을 통해 원활한 난이도를 찾을 수 있었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음
- 지속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함께 제작한 결과물들을 보며 성취감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공유한 시간이었음
- 새 활용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실용적인 물품을 제작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음
- 프로그램 활동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팀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교우 관계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었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부모대상 심리지원 가이드 북 제작



활동 내용

첫째,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에 위치한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의 실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센터에 내방한 아동에 대한 행동 관찰, 실제 상담적 개입 및 아동의 부모님에 대한 초기 면접과 지속적인 부모 교육 세션을 통해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함양하였다.

둘째,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실습 동안 센터에 내방한 부모에게 직접 청취한 실제 양육 장면에서의 고민 및 궁금점 등을 청취, 취합한 뒤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 북을 제작하였다. 이를 지도교수인 임상심리전문가가 피드백하여 수정한 뒤 계명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예

비 사회적 기업 “마음의 정원”을 운영 중인 하수정 대표를 통해 책자의 디자인 및 제본을 완료하였다. 해당 책자는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에 내방한 부모에게 실제로 배포되는 중이다.

셋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임상심리전문가 김다인 박사과정생의 슈퍼비전을 통해 센터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대학원생들의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 사례 개념화 및 치료 능력 함양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전문적인 임상 역량은 향후 계명대학교를 졸업한 뒤 임상 현장에서 활동할 임상심리사들의 취업률 증가와 이를 통한 학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 성과

첫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부모 대상 심리지원 가이드 북을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에서 실습 중인 심리학과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이 직접 내방한 부모들로부터 질문 및 고민 사항을 수집하였고, 이를 취합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답변을 수립, 책자 내용을 구상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인 심리지원 가이드 북을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다. 해당 책자는 실제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에 비치되어 내방한 아동의 부모들에게 소개 및 배포되는 중이며, 대구광역시 내의 다문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 심리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형성에 기여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에서 실습 중인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 및 임상적 역량 증가에 기여하였다. 해당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센터에 내방한 부모들로부터 실제 질문과 고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실습생들은 실제 발달 장면에서 내담자 및 보호자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심리지원 가이드 북을 제작하였다. 또한 전공 융합혁신사업(EUP)의 일환으로 진행된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임상심리전문가의 슈퍼비전은 실제 치료 장면에서의 사례개념화, 개입 방향 설정에 대한 경험을 쌓고, 관련 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충분하였다.



활동 소감문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에서의 실습 도중 전공 융합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에 내방한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실제 질문과 고민에 대해 청취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담자 및 보호자의 실제 요구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고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 지식을 통해 답하고,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임상 현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내담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방법과 이에 답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센터에 내방해야만 상담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전과는 달리 아동의 부모가 직접 가정으로 가져가고, 가정에서 쉽게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며, 육아 및 발달과 관련된 고민에 심리학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지원 가이드 북을 제작함으로써, 시간적 여건 등으로 발달지원센터에 내방할 수 없는 가정까지 아동의 발달과 양육 스트레스 등 부모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센터나 병원에 내방하여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정말로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보편적인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었으며, 현재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사회 임상심리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임상심리학자로서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정신건강을 향상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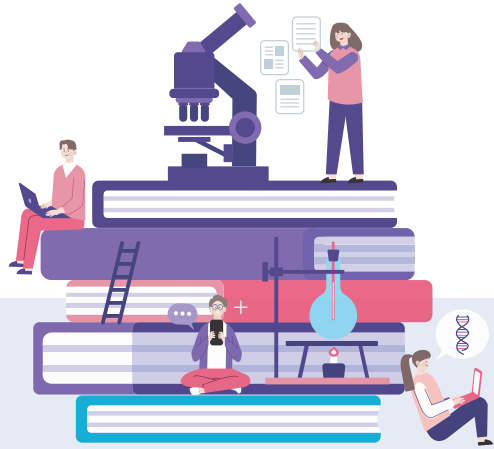
해당 활동 기간 동안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재

학 중인 임상심리전문의의 슈퍼비전을 통하여 실제 임상 장면에서의 사례 개념화와 치료적 개입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에서의 실습은 실제 발달 혹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대면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고, 부모에게 상담적 또는 교육적 개입을 진행하는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실제 치료를 진행하는 만큼 임상심리전문의의 슈퍼비전은 실습생 들뿐 아니라 센터에 내방한 아동과 부모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부모의 만족도는 물론, 실습생들의 전문성 또한 함께 향상되었을 것이며, 더욱 전문적인 개입 방법의 학습으로 계명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임상 현장에서 실무를 진행할 때도 더 좋은 임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해당 전공융합혁신사업에 참여하며, 기존에 일상적으로 진행 되어왔던 실습에선 하지 못했으나, 임상 현장에서 심리학자로 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실습을 마친 후에도, 계명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임상 현장에서 실무를 진행할 때도 기억에 남아 항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찾아가는 과학교실



활동 내용

세포 컵받침 만들기과 DNA 퍼즐 제작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세포 컵받침 만들기과 DNA 퍼즐 제작 활동은 생물학적 개념을 시각적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포 컵받침 만들기를 통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각 세포 소기관의 역할을 학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학습을 통해 세포의 복잡성을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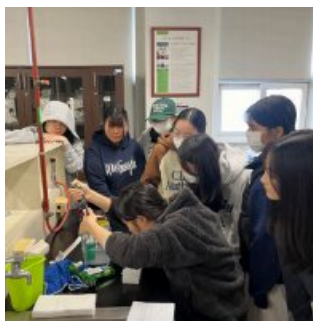
또한 세포 컵받침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핵은 중앙에 큰 원, 미토콘드리아는 타원형으로 표현하고 각 세포 소기관을 그리거나 붙이는데, 이때 각 소기관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DNA 퍼즐 제작 활동을 함으로써 DNA의 구조와 염기서열의 원리를 이해하고, 염기쌍의 결합과 유전 정보의 개념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DNA의 퍼즐을 맞추면서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완성하며, 각 염기쌍의 결합 원리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두 활동 모두 아이들이 생물학적 개념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요 성과

세포 컵받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세포 구조와, 세포의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포의 주요 구성요소인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 등 이러한 요소들을 색, 질감 등으로 표현해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세포 소기관을 꾸미고 만들고 각각의 역할을 친구들과 서로 역할 설명을 하며 퀴즈도 같이 풀어보며 생명과학적 개념을 창의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직접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과학 학습이 지루한 것이 아닌 흥미로운 것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직접 가설을 세워보며, 활동을 통해 자신이 직접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 탐구의 기본적 절차를 자연스럽게 학습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가설을 세우는 단계와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며 과학적 탐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생체 촉매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카탈라아제가 효소이며, 특정 화학반응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중 특히, 과산화수소가 카탈라아제에 의해 분해되어 산소와 물로 안전하게 바뀐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효소가 우리 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아이들은 많은 호기심을 가졌으며 이는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과학이 단순히 교과목이 아니라 흥미로운 탐구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주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팀원들과 함께 활동 내용 및 장소도 함께 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팀원들이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 서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생명과학과 학생으로서 가장 친숙한 세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는 세포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기도 하며, 추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세포 컵받침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각 세포의 부분을 표현하고 그에 맞는 설명을 함으로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세포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 또한 세포가 단순히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존재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어서 뜻깊은 활동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DNA 구조를 모형으로 접하며 복잡한 유전 개념을 단순화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서로 다른 염기가 짝을 이루는 과정을 퍼즐로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몰입하여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자신이 만든 DNA 구조를 보며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해주는 코드라고 설명을 해주자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며 호기심을 가지자 부뚝하였습니다.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해 아이들은 음식물 속 탄수화물을 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설탕이나 녹말과 같은 이러한 흔한 물질들이 이러한 특정 화학 반응을 통해 색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신기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팀원들과 다같이 이 활동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즐겨 먹는 음식을 과학적으로 관찰해볼 수 있다는 점에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생체 내 촉매 확인 실험은 효소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좋

은 기회였습니다. 효소의 촉매 작용을 설명하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은 발포되는 거품을 보며 놀라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을 통해 아이들이 생명체 내부에서도 어떠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더불어 그 과정에서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설명에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며 일상에서 과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아이들과 다같이 이러한 활동을 함께 하며 평소에 알고 있던 개념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직접 만들거나 보는 활동을 하며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팀원들과도 처음에는 과연 아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좋아할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욱 더 열심히 활동에 참여를 해주며,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니 많이 부뚝하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다같이 함께 하며 아이들의 호기심과 질문,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의 주제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과 의문감을 아이들이 가졌지만 활동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이 어렵고 복잡한 학문이 아닌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호기심을 갖고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분야라는 것을 깨달은 거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은 아이들뿐 아니라 저에게도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각 주제에 대해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서 저 또한 기초부터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을 더욱 더 친숙하게 느끼고 스스로 탐구해 나가길 바라며, 다시 한번 이번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건강드림서포터즈



활동 내용

[오프라인-교내]

- 1) 교내 절주, 금연 캠페인(12회)
 - 교내에서 리플릿 및 물품 배부를 통해 절주, 금연, 심뇌혈관 질환 홍보 캠페인
 - 학우들을 대상으로 절주 인식조사 진행
 - 교내 게시판 곳곳에 금연 포스터 부착 캠페인
- 2) 달서구 보건소 연계 캠페인(14회)
 - 음주체질검사 알스패치 검사를 통해 본인의 음주 체질 확인하고 위험성 설명
 - 절주잔에 절주 다짐을 적어, 나만의 절주잔 만들기
 - 음주 대체 활동 알코올 칵테일 만들기
 - 음주 고글 체험
- 3) 동아리 일반부원과 함께하는 캠페인(5회)
 - 절주, 플로깅을 진행하여 담배꽂초 줍기 캠페인

[오프라인-교외]

- 1) 교외 절주, 금연 캠페인(5회)
 -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절주, 금연, 심뇌혈관질환 캠페인 리플릿 배부
 -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절주, 금연 인식조사
- 2) 북구 보건소 연계 금연 캠페인(1회)
 -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리플릿 및 물품 배부
 - 피켓 들고 금연띠 매고 홍보 캠페인

[온라인]

- 1)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절주, 금연 관련 카드뉴스 제작하여 업로드(337회)
 - 절주, 금연 정기 콘텐츠(절주, 금연 관련 지식, 절주, 금연 모니터링, 금연 정책 등)
- 2)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절주, 금연 관련 영상 제작하여 숏폼 영상 업로드(40회)
 - 자체 숏폼 영상 제작(활동 브이로그, 절주 인식조사, 금연 대체 활동 등)
 - 자체 숏폼 영상 제작(차노을 챌린지, 뒤집잔 챌린지 등)
- 3) SNS(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
 - 절주연인 필터를 제작하여 이벤트 진행
 - 퀴즈, 챌린지 등의 이벤트 진행
- 4) 달서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심술송” 영상 제작
 - 달서구 보건소 활동 영상 제작
- 5) 음주폐해예방의달 절주 서포터즈 월미션으로 SI 기반 “빛나는 내일 절주로 시작해” 노래 및 영상 제작금연 리플릿 배부를 통해 절주, 금연 홍보 캠페인

주요 성과

공중보건학과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절주, 금연 오프라인 캠페인 총 23회, 온라인 캠페인 총 377회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점, 절주, 금연 문화를 조성하여 교내 학우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직접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활동이 프로그램 주관하는 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평가에서 절주 서포터즈 활동은 최우수상, 금연 서포터즈 활동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활동 소감문

1년 가까이 활동했던 전공융합혁신 사업에 마무리 활동인 결과보고서를 쓰고 있으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어서 흥기분한 마음이 든다. 활동 처음에는 단순히 절주, 금연을 알리고 '참여'라는 역할에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활동을 통해 음주, 금연의 위험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절주, 금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절주, 금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교내 학우들과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SNS에서 전공융합혁신사업의 취지 그대로 캠페인, SNS 홍보,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교내외 다양한 장소와 보건의료기관(달서구 보건소, 북구 보건소, 달서구 중독통합관리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절주 실천을 권장하고 교내 학우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절주와 금연의 중요성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다. 이러한 활동들에서 전공융합혁신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더욱 질 높은 캠페인을 만들 수 있었다.

음주 체질검사 알스패치, 음주 고글, 절주 다짐 적는 나만의 절주잔 만들기, 음주 대체 활동 무알콜 칵테일 만들기 등 흥미로운 캠페인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 활동들을 통해 전공 지식 습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보는 실습을 거치면서 팀원들과 협업하며 리더쉽과 팀워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저희 팀원 모두가 성장하는 값진 시간들이었다. 활동이 끝나도 건강한 절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사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어 주시고 도움과 지도해주신 교수님, 활동 중에 많은 의문점에 친절하게 답해주신 담당자님, 무엇보다도 함께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노력했던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소감을 마무리 한다.



따뜻한끼 도시락 나눔



활동 내용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 학생들이 취약계층의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한 끼 도시락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신당동 행정복지센터분들의 도움으로 12가정을 추천 받아, 연간 8회(1학기: 4회, 2학기: 4회), 식품가공학실험실에서 도시락 만들어 어르신들의 각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였습니다.

각 활동은 당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활동 2주일 전부터 시장조사, 장보기, 용기 구입, 재료 손질 등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메인 메뉴를 중심으로 넉넉한 양을 제공하고 환경호르몬을 고려하여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아침 7시부터 재료 손질과 요리를 시작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후, 직접 포장하여 배달하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활동 후에는 소회의를 열어 각자의 역할을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회차가 거듭될수록 활동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독거 어르신들의 삶에 따뜻함을 더하는 동시에, 저희 팀원들에게도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주요 성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독거 어르신들께 단백질 위주의 도시락을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 활동은 지역 내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사 과정에서 팀원들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팀워크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매 활동마다 어르신들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든든하게 잘 먹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음 활동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총장님의 격려 편지를 받는 계기가 되었고, 담당 교수님께서 계명대 신문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널리 알리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희 팀원들은 지역사회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이번 “따뜻한끼 도시락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지역 사회의 독거 어르신들께 진정한 나눔의 가치와 따뜻함을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진행하며 각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봉사활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항상 함께해 주고 잘 따라와 준 팀원들, 그리고 이 활동을 제안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오세연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을 때는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협력하여 재료 손질과 조리를 하며 함께하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조리 과정에서 열정을 보였고,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며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배달하는 도시락의 질과 양 모두 만족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포장하며 느꼈던 기대감과 설렘은 배달 후 어르신들이 맛있게 잘 드셨다는 말씀에 더욱 커졌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너무 맛있다, 다음에도 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시는 작은 선물과 감사 인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들은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을 다양한 얘기를 통해 나누며 느낄 수 있었고, 어르신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저희의 작은 도움이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봉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다 (생명)는 것에 대한 기쁨과 다시 한 번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느끼며, 나눔의 가치와 함께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후 모인 소회의 시간은 저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음 활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보다 나은 봉사를 위한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요구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봉사활동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끼를 제공하였지만, 그 가치는 그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가공학과의 건강 먹거리 나눔: 전통 발효식품 함유 이색 디저트



활동 내용

이번 EUP 활동에서는 지역 사회의 노인분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쌀강정과 오트밀 쿠키를, 하반기에는 양갱을 제작하고 전달하였다. 먼저,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노인분들에게 영양가 있는 간식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건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간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전 조사하고 준비하였다. 이후, 완성된 간식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하였고, 노인분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주로 백은관 424호에서 부원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웠다. 제작 장소는 백은관 553호로, 이곳은 위

생적이고 간식을 만들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특히 노인분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설탕의 양을 조절하였다. 조리 후에는 포장하여 노인복지관에 전달하였고, 이 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어서 전달의 의미가 더욱 깊었다. 간식을 나누어 드리며 노인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원들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주요 성과

첫째, 지역 사회의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한 디저트 레시피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양가 높은 간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맛과 영양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부원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프로그램 시작 이후 지역 사회의 노인 참여자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확산되었다. 많은 노인분들이 간식을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향후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의 존재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과 교수님이 직접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건강 디저트를 전달하며, 식품가공학과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분들은 학과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분들에게 단순한 디저트 제공을 넘어,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활동 소감문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노인분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쌀강정과 오트밀 쿠키를 제작하여 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하였고, 하반기에는 팥양갱, 우유양갱, 녹차양갱, 사과양갱을 제작하여 노인복지관에 직접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협력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직접 제작한 간식과 디저트를 노인분들에게 전달하며 그들의 미소를 볼 수 있었던 순간은 매우 보람찼습니다. 노인분들이 간식을 받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작은 행복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식습관과 건강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간식이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

가, 정서적 지지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경험을 통해 부원들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고, 우리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은 저와 부원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을 더욱 키워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활동이 단순히 간식 나눔을 넘어, 지역 사회의 노인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더 많은 노인분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슈퍼시니어를 위한 알츠하이머 및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측정



활동 내용

노인 조합 복지관 방문 및 교육 진행

-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치매의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 교육을 통해 고령자들이 치매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비접촉식 생체 신호 측정 기술 활용한 검사

- 고령자들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 비접촉식 생체 신호 측정 기술을 활용
- 이 기술을 통해 고령자들의 치매 위험도, 혈관의 나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 등을 간단하게 진단

주요 성과

치매와 심혈관 질환 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방문을 통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 진단과 심혈관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
- 고령자들의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조언을 제공함

비접촉식 생체 신호 측정 기술을 활용한 건강 평가

- 아이트래킹과 rPPG 기술을 사용하여 고령자들의 치매 위험도, 혈관의 나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간단하고 비침습적으로 진단
- 고령자들에게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시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건강 관리 접근성 확대

-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령자들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확대





활동 소감문

이번 프로젝트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진단과 심혈관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비접촉식 생체 신호 측정 기술을 활용해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봉사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치매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세션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조기 진단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치매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처음 접하거나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활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세션이 끝난 후 질문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침습적이고 오래 걸리는 검사 방식과 달리, 비침습적인 rPPG 기술은 고령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게 진단하는 기술은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사 후 개인별로 제공된 건강 피드백은 고령자들이 건강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의 협력은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참여자들과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고, 교육과 검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 관리 시스템과 연결되며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제안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고령자에게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내 건강 상태를 더 잘 알게 되었다"거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이 봉사 활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령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취약계층을 위한 식물심리치료



활동 내용

청소년 및 취약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식물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전공 학생들의 기존 전공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식물 심리치료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게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활동을 하면서 직접 식물을 보고, 만지고, 식재하고, 돌보는 체험 실습 및 식물과 생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치료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식물 감수성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청소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식물 심리치료와 협력 기관과 논의하며 포트 식재 및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물 심리치료는 식물을 함께 심으며 참여자와의 소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참여자들이 각자 화분에 식물을 심고, 물을 주며 관리하는 활동으로 휴과 식물을 만지

고,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면서 책임감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이 돌본 식물이 활착되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력 기관과 논의하여 중정 정원 및 옥상 정원의 조성을 진행했다. 협력 기관은 만평어린이도서관, 달서구, 중구, 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 내 유휴 공간 및 실내 공간을 활용해 중정 정원과 옥상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협력 기관과 논의해 정원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정원을 유지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주요 성과

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을 향상 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식물심리치료 활동은 단순한 자연 체험을 넘어서, 도시 환경에서 접하기 어려운 식물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었다. 참여자들은 식물을 만지고 심으며 느끼는 경험을 통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식물은 참여자들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에게 이 활동은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적인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활동적인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하며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생태와 자연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 및 협업을 통해 그동안 직접적인 교류가 부족했던 학생들과 지역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협력은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지역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이 지속된다면, 지역 공동체 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정신적, 정서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활동 소감문

대구 동구 허브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식물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단순히 식재와 조경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연을 매개로 한 치유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경험이었다.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확장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의 핵심 활동은 허브센터 내 정원 조성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자작나무를 심으며 자연과 직접 교감할 수 있었다. 특히 주민들은 생태와 조경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느꼈다. 청소년들은 식물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위로를 받았고, 취약계층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식물이 단순한 장식적 요소를 넘어 마음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참여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며 나누는 시간은 자연스러운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주민들이 완성된 정원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끼고, 이곳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는 더욱 컸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 전공과 연계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그라스와 화분을 식재하면서 식물과 공간의 조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각 클래스의 생김새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적합한 흙을 선택하며, 식재 후 마감 작업과 물주기, 전정 방법 등을 익히는 과정은 매우 실질

적이고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었다. 특히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식물의 특성을 반영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고, 화분 배치를 통해 공간의 동선과 이용자의 시선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한 점은 공간의 미적 가치와 실용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작은 변화가 공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정원을 조성하며 제가 심은 식물과 배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제게 큰 보람과 자부심을 주었다. 완성된 공간이 주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장소로 활용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앞으로의 제 전공 활동에 대한 동기를 더욱 강화해 주었다.

또한, 손으로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는 행위 자체가 제게도 심리적 치유와 성취감을 주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조경 설계와 시공이 단순히 기술적 작업을 넘어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 이와 같은 활동이 단순히 현재의 결과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를 더해갈 수 있다는 점은 지속 가능한 조경 설계와 실무에 대한 제 관심과 열정을 더욱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조경 설계와 시공의 디테일을 더욱 발전시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특히, 자연과 인간, 도시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조경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실무 경험을 넘어 제 전공의 실질적 가치를 체감하고, 조경 분야에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시간이었다.



다문화가족 멘토링



활동 내용

① 다문화 가정방문

가정방문 활동을 신청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당 학생 3~4명을 한 조로 구성하여 한 학기에 총 6번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가정방문 활동은 각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보충 과목 수업, 만들기, 보드게임, 악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올해는 달서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이 나와 있는 소책자 및 카드뉴스를 제공받아 가정방문 시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에게 설명하고 건강에 대한 자기관리의 관심을 높였다. 활동 인증 사진과 구체적 활동 내용을 작성하여 봉사 시간도 받을 수 있었다. 첫 가정방문 시에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시행하였는데 키/몸무게,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빈혈 수치를 측정하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② 달서 다문화엄마학교 입학식, 졸업식/ 헬스페어

달서 다문화엄마학교 입학식 및 졸업식을 맞이하여 각 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초대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는 크게 건강검진, 교육 부스, 놀이 부스, 포토존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입학식 및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다른 부스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검진 부스에서는 키/몸무게,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빈혈을 검사하고 정상 수치와 비정상 수치에 대해 안내한 후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하였다. 놀이 부스에서는 아이클레이, 비즈 책갈피 만들기, 비즈 반지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교육 부스에서는 달서구 보건소에서 보내주신 팜플렛을 이용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포토존에서는 준비한 졸업식 포토월 앞에서 학위복을 입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성과

① 다문화 가정방문

처음 가정방문에 나설 때 동아리원들은 다소 소극적이었으며,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대해 많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가정방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다.

② 헬스페어

포토존을 준비하여 각 가정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자 어머니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입학식과 졸업식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부스와 놀이 부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다문화 가정의 참여율이 증가했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행사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도 큰 보람으로 다가와 더 능동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활동 소감문

올해 진행된 다문화 가정방문 활동과 헬스페어는 많은 깨달음과 보람을 안겨준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다.

가정방문 활동은 한 학기 동안 6번에 걸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가정당 학생 3~4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각 가정을 방문해, 보충 과목 수업, 만들기 활동, 보드게임, 악기 연주 등 다양하고 맞춤형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올해는 달서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는데, 심뇌혈관질환 예방법이 담긴 소책자와 카드뉴스를 제공받아 가정을 방문할 때 이를 부모님들께 설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고,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첫 방문에서는 간단한 건강검진도 시행하였다. 키와 몸무게,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빈혈 수치를 측정하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과 함께 현재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며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활동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건강에 대한 지식을 쌓을 기회가 되었고, 봉사 시간 인증을 통해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던 가정방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따뜻한 소통의 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며 우리 활동이 이들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달서 다문화엄마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및 헬스페어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 가정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와도 같았다. 행사는 크게 건강검진 부스, 교육 부스, 놀이 부스, 포토존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스는

어머님들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였다. 건강검진 부스에서는 키와 몸무게,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빈혈 수치를 측정하고, 검사 결과를 통해 정상 수치와 비정상 수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또한, 현재 건강 상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어머님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도왔다. 교육 부스에서는 달서구 보건소에서 제공한 팸플릿을 활용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을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에 대해 질문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놀이 부스에서는 아이클레이와 비즈 책갈피, 비즈 반지 만들기 같은 활동이 진행되었고,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포토존은 큰 인기를 끌었는데, 준비된 졸업식 포토월 앞에서 학위복을 입고 가족 사진을 찍으며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다문화 가정과 학생 모두에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가장 큰 보람은 다문화 가정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불어 학생들 역시 능동적으로 행사와 가정방문에 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즐겁게 웃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며 더 깊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가정방문이나 행사 준비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배우며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

아이사랑 마음 나누기



활동 내용

2024학년도 활동으로는 5월 25일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아동들과 함께 건강한 샌드위치와 주스를 만들며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8월 24일 SOS 어린이마을에서는 멘티들과 아이클레이, 글라스데코 등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후 보드게임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9월 23일 계명대학교에서는 과일을 활용한 영양소 공급 활동을 진행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흥

보했다. 11월 2일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손 운동을 통한 뇌 발달을 돕는 활동을 진행했다. 11월 9일 SOS 어린이마을에서는 미니 과자집 만들기과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아동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11월 23일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실습을 진행하였다. 11월 30일에는 구강 위생 교육을 통해 아동들에게 올바른 양치 습관을 전파했다. 각 활동에서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요 성과

- 비만 예방 교육(5/25,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아동들에게 비만의 위험성과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샌드위치 및 주스 만들기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 멘토링 활동(8/24, SOS 어린이마을):** 멘티와의 교류를 통해 멘토링 활동의 의미를 전달하고, 아이클레이와 글라스데코를 활용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 영양소 공급 활동(9/23, 계명대학교):** 과일을 활용한 영양소 공급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각자 필요에 맞는 영양소 섭취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 손 운동을 통한 뇌 발달 촉진(11/2,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아동들이 손 운동을 통해 소근육을 자극하고 뇌 발달을 돕는 활동을 진행하여, 창의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 위생 교육 및 실습(11/23,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손 씻기 실습을 통해 아동들이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익히고, 세균 제거 효과를 직접 체험하여 위생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 구강 위생 교육(11/30,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아동들에게 치아 건강과 충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을 통해 올바른 양치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활동 소감문

2024년 동안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아이들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각 활동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SOS 어린이마을에서의 봉사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저에게도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 하나는 5월 25일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비만 예방법과 올바른 식이법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비만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그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샌드위치와 건강 주스를 만들며 실생활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익히는 과정에서, 그들의 호기심과 관심이 느껴졌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매우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활동은 11월 2일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손 운동을 통한 뇌 발달 촉진 활동이었습니다. 아동들이 자신을 표현하며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었는데, 아이들이 손으로 모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뇌 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은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봉사자와 아이들이 함께 작업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특히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SOS 어린이마을에서의 멘토링 활동도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8월 24일,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며, 그들의 특성과 관심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서로를 알아가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멘토링 활동에서의 핵심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멘티들이 더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9월 23일, 계명대학교에서 진행한 과일을 활용한 영양소 공급 활동 역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활동은 과일을 이용해 재미있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참가자들에게 영양소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아정을 만들며 과일의 효능을 배우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영양소를 선택해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11월 9일 SOS 어린이마을에서 진행한 미니 과자집 만들기 와 보드게임 활동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과자집을 만들며 창의력을 발휘했고, 보드게임을 통해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즐기는 시간을 넘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3일,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손 씻기 교육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과 세균을 제거하는 방법을 실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아이들은 위생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손 소독제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익히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참여한 봉사 활동들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봉사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을 나누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들과의 소통,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얻은 경험은 앞으로도 제 삶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재활 운동프로그램



활동 내용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 취약계층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재활 운동프로그램으로 지도교수님의 도움으로 대구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지하 1층 강당(노리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 2회(화요일, 목요일) 1시간씩 규칙적으로 시행된 활동은 근감소증과 만성질환, 그리고 암 발병 위험군 등에 속한 건강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탄력 저항밴드와 씨클링 소도구를 활용하여 유연성, 근력, 유산

소 운동을 포함한 전신운동이 포함되었으며, 운동 강도, 시간, 기간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활동 중에는 건강 체력 스크리닝 및 건강상담을 통해 운동 전/후 체력측정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신체 변화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 노인들의 평형성과 근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 체력, 골격근 및 면역 기능이 개선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

이번 재활운동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분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적용함으로써 신체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를 몸소 느끼며 생활 속에서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활동 시간 외에도 맨몸,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법을 가정으로 돌아가 스스로 운동하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운동 지도자로 참여한 학생들은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대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분들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건강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며 고마움을 여러 차례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피드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인 노인분들에게 건강을 증진할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실무 경험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 활동이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스포츠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모여 직접 재활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전에서 적용해 보는 경험은 매우 뜻깊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운동법을 아는 것을 넘어, 취약계층의 노인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의점을 파악하며, 적절한 난이도를 설정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운동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지루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체와 하체 운동을 각각 4가지씩 선정하고, 앉아서 하는 운동, 일어서서 하는 운동, 소도구를 활용한 운동, 노래에 맞춘 전신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여 노인분들이 즐겁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후 실전 지도 과정은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동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도자의 운동 능력이나 지식보다 학습자가 운동을 잘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지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큰 목소리로 천천히 설명하며, 운동과 일상생활의 연관성을 찾아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재활운동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노인분들께서 “매주 운동하니 좋다”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격려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드리며 건강한 생활을 돕고자 하는 열정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즈음 이제야 어르신들과 조금 더 친해져 더 잘 가르쳐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활동이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 다시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인분들께 운동의 가치를 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은 저의 역량을 사회적 책임과 연결 짓는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재활운동프로그램을 통해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면역기능 저하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긍정적인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직접 경험한 것은 큰 보람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운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의 체력 증진 및 우울감 감소를 위한 운동 중재



활동 내용

저희 팀은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고령자분들의 체력 증진 및 우울감 감소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침상 및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서기와 보행 능력의 개선을 목표로 매주 정기적으로 서재 요양원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고령자분들의 신체적 특성과 요양시설 환경을 고려하여 맨몸 운동, 소도구(핸드 익스사이저, 저항 밴드, 스틱 모빌리티 등), 요양시설 도구(보조기, 의자 등)를 활용한 하체 근력 강화 중심의 운동으로 계획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고령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스트레칭

을 실시하였으며, 스스로 하기 어려운 고령자분들에게는 팀원들이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도와 드렸습니다. 모든 운동은 고령자분들이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참여 의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운동 활동이 끝난 후에는 고령자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으며, 지도교수님은 고령자분들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후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매번 활동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하지 근력 향상, 심리적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고령자분들의 운동의지 향상

초기에는 운동에 관심이 적었던 고령자분들이 팀원들의 꾸준한 방문과 지속적인 격려를 통해 점차 운동 참여도가 향상되었으며, 스스로 운동을 하시거나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운동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 근력 및 균형 감각 개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분들의 하지 근력과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스스로 일어서거나 보행을 시도하는 등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증대

EUP 프로그램 참여 후 고령자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 결과, 고령자분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이 증진되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1:1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EUP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고령자분들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춘 개별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활동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1:1 맞춤 운동 프로그램은 고령자분들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시켜 안전하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저는 2024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들을 위한 체력 증진 및 우울감 감소 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상태와 요양시설 환경에 맞춘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일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도 교수님과 함께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방향을 조율해 나가며,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과 요양시설의 제한된 환경을 고려하여 맨몸 운동, 소도구(핸드 엑서사이저, 스틱 모빌리티, 탄성 밴드 등), 요양시설 도구(의자, 보조기 등)를 활용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분들이 안전하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점차 완성해 나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자분들과의 교감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와 점차 나아지는 건강 상태를 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하면서 저 또한 큰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고령자분들의 운동에 대한 태도 변화였습니다. 활동 초기에는 운동에 관한 관심이 적고 부담을 느끼시던 고령자분들이 많았지만, 매주 꾸준히 방문하여 운동의 중요성과 이점을 설명하며 격려한 결과 참여도와 의지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학생들이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 팀 모두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고령자분들의 하지 근력과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고, 일부 고령자분들은 스스로 일어서거나 조금씩 보행하는 등 큰 발전을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변화가 일상에서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고, 운동이 단순히 신체활동을 넘어 고령자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많이 배

웠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지도하는 것을 넘어, 고령자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마주 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자분들께서 저희를 손주처럼 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지도자와 운동 참여자의 관계를 넘어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 중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고령자분마다 체력과 건강 상태가 달라서 같은 운동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1:1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운동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을 느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수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고령자분들이 운동 중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선점들을 반영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고령자분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건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분들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령자분들의 작은 변화에 기뻐하고, 교감을 통해 느낀 따뜻함은 앞으로 제가 운동 지도를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운동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노력과 어르신들의 열정이 합쳐져 만들어진 이 소중한 결과를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지속해서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약학대학, 마음으로 봉사하는 '心' 봉사



활동 내용

-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폐의약품 분류활동에 참여
-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와 함께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어린이 집 및 유치원에서 연극 진행
-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참여
-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동아리 부스 운영



주요 성과

- 지역사회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
-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한 연극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이들이 해당 주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
-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해 불필요한 약물사용 및 약물 오남용을 감소시키고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함
- 젊은 층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의 종류와 약물관련 사회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활동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함





활동 소감문

전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폐의약품분류활동,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연극, 다제약물관리사업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인 폐의약품분류활동은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졌는데 지역 내 아파트단지 등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을 알약, 가루약, 물약 등 종류별로 구분해 폐기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된 양만해도 백 킬로그램이 훌쩍 넘었고 산패되고 녹아 엉겨 붙은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항생제, 시럽제, 마약성 진통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다른 폐기물과 뒤섞여 환경에 축적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다는 점과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와 함께한 마약 및 약물오남용 예방 연극입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총 십여 차례에 걸쳐 대구 지역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마약, 약물 오남용 개념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동물 의상을 입고 무대에 등장한 순간부터 반응이 매우 뜨거웠고, 연극 도중 아이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던 힘을 다해 대답하던 모습, 연극의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크게 호응하던 모습, 연극이 끝나면 같이 사진을 찍자며 쭉쭉 달려오던 모

습, 연극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요약해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대사가 더 잘 전달될지, 동작과 동선은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일지 고민하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무더위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하고 노력했던 시간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인 다제약물관리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한 활동으로, 약사님과 약학대학학생 한 명이 한 조가 되어 환자분의 가정을 방문해 환자분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분이 복용하시는 약이 많게는 수 십 개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일한 약을 중복해 복용하시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의약품 복용, 너무 많은 양의 의약품 복용이 오히려 독이 되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환자분들이 이를 부작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약물을 추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다양한 환자케이스를 통해 볼 수 있었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약사의 역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융합혁신사업을 통해 약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해볼 수 있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또, 현직에 계신 약사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며 지역사회 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의 책임감도 느껴볼 수 있었고, 더욱 능동적으로 약사의 직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AC 세르버스 레단 x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다락방>



활동 내용

2024년 1학기 동안 다락방 봉사활동은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미래 설계, 그리고 아동 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멘토-멘티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우리 함께 놀아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멘토와 멘티 간의 긴장을 풀고 친밀감을 형성한 후, 보드게임과 육체적 놀이를 통해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멘티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아 상황에 따라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놀이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각 활동 후, 멘티들이 자신과 팀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 '꿈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멘티들의 미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와 체험 활동을 통해 멘티들이 자신의 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건축가 및 랜드마크 교육에서는 멘티들이 세계의 유명 건축물과 랜드마크에 대해 배우고, 이를 주제로 조별 협력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멘티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랜드마크를 설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방관 이해 및 안전교육에서는 소방관의 역할과 직업 정신을 이해시키고,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 대처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다. 멘티들이 실제 소방 장비를 다루어 보고, 화재 시 대처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요리사 이해 교육 및 실습시간에는 요리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고, 멘티들이 직접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멘티들이 새로운 문화와 직업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3) 아동 놀 권리캠페인 및 교육

아동의 놀 권리와 그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놀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시켰습니다. 멘티들이 놀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아동 놀 권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페이스 페인팅과 물총싸움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체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직접 체험하며, 놀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인권과 관련된 퀴즈 및 편지 작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들은 아동들과의 활동을 통해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이를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4) 계명대학교 탐방 및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탐방을 진행하여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웠습니다. 다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아동들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탐방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멘토와 멘티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5) 환경보호교육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와 각국의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멘티들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배웠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통해 글로벌 환경 이슈를 설명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습 활동으로 환경 관련 퀴즈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호(Ooho)'라는 먹는 물병을 만들고,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과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해 배웠습니다.

6) 난민 이해 교육

난민의 의미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 난민 인정 과정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멘티들은 난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난민 관련 시청각 자료와 강의를 통해 난민의 상황을 설명하고, 난민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난민 구호 게임을 통해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활동 소감문

이번 1학기 동안 '다락방' 봉사활동에 멘토로 참여하며 얻은 경험은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 멘티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멘티들과 첫 만남을 가진 후, 이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밝았으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함께 놀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멘티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고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멘티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협력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은 멘토들도 부딪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놀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틀' 프로그램에서 멘티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의 꿈과 목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을 이야기할 때 눈을 반짝이며 열정을 보이

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을 함께 분석하고, 팔방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요리사의 역할을 체험할 때, 아이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멘티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부딪혔습니다.

다문화 이해교육과 아동 인권 교육을 통해 멘티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 개발협력센터와 함께 진행된 다문화 교육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방법을 배우고, 난민 문제를 다루면서 세계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이번 활동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멘티들뿐만 아니라 멘토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멘토로서의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며,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경험은 멘토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멘티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로서,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논공초등학교 러시아어권 다문화 학생 학습 및 생활지원



활동 내용

논공초등학교에 가서 러시아어권 초등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고, 부족한 과목을 가르치거나 진행 중인 과목을 가르치는 활동을 가짐. 수업 말고도 다른 시간엔 소강당에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짐.

주요 성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부족한 과목 능력 개선, 신체 활동으로 인한 체력능력 향상, 한국어 실력 향상.
대학생들에게 현실에서의 실전 러시아어를 들으며 러시아어 능력을 기르게 됨.



활동 소감문

처음에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직 러시아어로 자기소개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러시아어권 학생들이 있는 초등학교로 봉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죠. “소통의 문제로 수업을 잘 이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논공초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어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편하게 어울려 준 덕분에 봉사활동을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러시아어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러시아어를 듣고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저희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서 경험과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며, 저희는 조금씩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고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소통이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웃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저희에게 편하게 다가오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시간과 예산의 제약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과 노력은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논공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들, 계명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함께 노력한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내용

2024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EUP)을 통해 다문화·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1학기에 지산공동육아나눔터, 와룡성심아동센터, 대구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곳에서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했으며, 2학기에는 기존 활동했던 센터에서 다사지역아동센터,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진행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한 팀원들은 각자 담당하는 센터에서 매주 1회씩 정해진 요일에 방문하여 1-2시간가량 아이들에게 외국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멘토링 학습을 진행하면서 팀원들 각자 따로 수업 자료를 준비하긴 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전체 공동 목표는 '흥미로운 외국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자'로 설정하여 다른 나라 전통 음식 만들기 및 각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 춤, 놀이 배우기 등 문화 체험 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꾸준히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수업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아직 다양한 경험이 많지 않은 아이들이 이번 기회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양성과 독창성을 함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김채영: 고등학교 2학년 때 1:1 멘토링 교육봉사는 해봤지만,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준비하고 수업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학교 선배도 알게 되고 초·중·고등학생 아이들도 만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에 준비한 자료로 수업한 후, 팀을 나눠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아이들끼리 선의의 경쟁이 붙어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걸 보고 우리 팀도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저학년, 고학년이 같이 모여 수업하다 보니 고학년 아이들 수준으로 진행하여 저학년 친구들은 신경 못 쓴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우고 발전했다고 느꼈습니다.

김태환: 스페인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보람을 느꼈고 아이들이 외국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수빈: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긴장도 많이 있었는데 계속 활동하다 보니 아이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게 되었고, 이전 시간에 배운 스페인어 단어나 문장을 기억해 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번 활동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번 활동마다 부듯했습니다.

박초원: 이번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던 과정에서 나 또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되면서 스페인어 구사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 보람찼던 활동이었다.

이두성: 아이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고 재밌게 놀아주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서 많이 배웠고, 뜻깊은 경험이 됐습니다.

이승현: 이번 EUP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은 단순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가 훨씬 더 깊다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작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더 성숙해지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좀 더 성장한 학생으로 나갈 수 있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상윤: 교육봉사를 하며 교육자로서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부뒀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단원평가로 성과를 이루고 아동센터에 좋은 평가를 남긴 덕분에 아동센터에서 활동 연장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저의 향후 진로에 있어서 영어교과목 교육자로서의 길을 고려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세진: 아이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활동은 처음이라 고민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큰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은: 이번이 3달 정도의 시간 동안 활동한 멘토링 활동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공부 활동을 하면서 점차 대화를 나누고 목표를 공유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매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부뒀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표현을 배울 때마다 기뻐하거나, 어려운 문장을 스스로 해냈을 때의 부뒀한 표정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멘토로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학습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친구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함께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멘토링 활동은 지식의 나눔을 넘어 서로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알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이채은: 처음 시작은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활동을 할수록 아이들이 가르쳐준 단어나 문장들을 기억해서 애기하는 모습이 너무 부뒀해서 더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방법으로 아이들이 암기에 성공했을 때 그 짜릿함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어떤 내용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현석: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멘토링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활동할수록 아이들이 나와 팀원들을 반기고, 수업하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초원: 이번 외국어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던 과정에서 나 또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되면서 스페인어 구사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이 보람찼던 활동이었다.

장세환: 이번에 참여한 전공융합혁신사업(EUP)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수업을 주관하여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활동을 하게 되면서 교육자들의 고충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진로에 대해 만족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보람은 이후에도 교육과 봉사에 참여하는 동기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저 또한 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다슬: 이번 활동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대학 생활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EUP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 지식을 이용하여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 역시 아이들과의 추억으로 알차고 부뒀한 기억이 가득한 202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팀원과 여러 기관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팀원들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시간 내어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임해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프로그램 마무리할 수 있어 그것 또한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직접 모든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공유했던 활동 보고서를 통해 많은 팀원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함께 의논하면서 다양한 생각과 방식을 공유하며,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많이 배우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저에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위해 더 다양하고 재밌는 교육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황태영: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페인어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외우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동 축구교실 프로그램



활동 내용

[상반기]

회의를 통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축구 실력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생들의 흥미 증진과 실력 향상을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운동과 더불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구상했고 이때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역시 구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생성하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부터 시작하여 축구에 필수적인 체력을 기르기 위한 체력운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숙달되었을 때 경기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체력 훈련을 통하여 기초체력을 다듬고, 앞서 배웠던 기본기 훈련을 다시 복기하였습니다. 축구를 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인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 기습 대쉬 등을 진행하였으며 경기 진행을 통하여 협동심을 길렀습니다.

마지막에는 본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초반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해당 학생의 부족한 점이나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을 1대1로 코칭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축구공을 다룰 줄도 몰랐던 학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변화되었습니다. 공과 친해지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등 본인 스스로 공을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잘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줍거나 내성적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개인의 성향이기에 선뜻 무엇을 지시하기가 곤란하였지만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갖은 노력하였고 결과적

으로 학생들이 잘 따라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축구 기술 및 능력 그리고 소통과 협력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외에 우리 계명대학교 학생 역시 얻은 것이 많습니다. 다대다 코치 및 1대1코치로 본인의 기량을 발휘하여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무엇을 지도하기에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서로의 피드백과 대화를 통하여 그것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선생 그리고 코치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활동 소감문

작년에 이어 EUP활동을 이어오는 만큼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해보아 그런지 손조롭게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준비도 수월하게 하였습니다.

부품 기대를 안고 첫 활동을 시작하였고 너무나도 잘 따라와 주고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주는 초등학생들에게 감동을 얻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훈련이 무리는 되지 않는지,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며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변경해 나가며 학생들의 실력 증진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특히나 건강에 직결되는 기초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훈련하였으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운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능력에 따른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개인의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매치와 경기 진행을 통하여 자신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경쟁심이 과열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우리 학생들이 스포츠 역할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걸쳐 활동하며 나날이 변화되는 학생들의 실력에 부딪힘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EUP로 활동했던 계명대학교 헤트트릭 학생들 역시 초반에는 어떻게 초등학생들을 지도할지 고민이 많았으나

한 번, 두 번 그리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개인별로 자신감도 생기고 자연스레 역량도 키워나갔습니다. 저희 역시 수줍은 학생들이 많았으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리더 그리고 선생의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저희의 담당 교수님,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분들 그리고 계명대학교의 적극적이며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만큼 그에 맞게 저희 능력의 최대치를 활용하여 뜻깊은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연도 역시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였으며 지도자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뜻깊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이 지도자의 길을 걷기 위한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프로그램 대상이었던 초등학생은 축구의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였고 프로그램을 지도한 우리 학생들은 개인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번 활동을 통하여 얻은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을 틀림없이 기억하여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활성화 프로젝트 (대구·경상)



활동 내용

-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교수 및 태권도시범단 학생들이 대구 및 경상 지역 초·중·고등학교 태권도시범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시범 실기지도
- 유·청소년 태권도시범단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태권도 기본동작, 시범기술, 시범 응용기술, 격파, 호신술, 태권체조 등 시범기술에 대한 개별 및 그룹 지도
- 사회공헌활동을 아웃리치의 개념으로 함께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식을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유·청소년 태권도시범단 활성화를 위한 교육봉사

주요 성과

-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와의 인적 전문성과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구시 및 경상권 지역 유·청소년 태권도시범단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성공
- 지역사회 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을 통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태권도 시범 분야 유·청소년 전공 체험 프로그램 지원하여 양성
- 계명대학교와 지역 협력으로 다양한 문화 교류와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상호 이해 촉진하고 발달성공
-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태권도시범단 활성화되었다.





활동 소감문

- 이 프로그램은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의 인적 전문성과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경상권 지역으로 확대한 유·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 저희 태권도 시범단은 2023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 (EUP)으로 ‘유·청소년 태권도시범단 활성화를 위한 성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3년도 EUP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계명대학교 입학으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여, 대구 지역에서 경상권 지역으로 확장한 태권도 시범단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개발·운영하고자 하였고, 결과적으로 거제, 부산 등 지역확장을 성공적으로 하였습니다.
- 약 300명 이상의 유·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아이들에게 알맞은 태권도 지도를 전하였고, 그들의 태권도 실기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점은 미래의 태권도 꿈나무 즉, 태권도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계명대학교에

직접 방문하게하여 드넓은 캠퍼스, 잘 가꾸어진 캠퍼스를 시각적으로 시청하게 하였으며 계명대학교 소속 태권도 시범단원들과 직접 같이 태권도를 수련하며 맘을 흘리고 친절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계명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시범단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경상권 등 까지도 태권도 관련한 취업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경험, 아이들과 소통하는 경험,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었던 중요한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청소년 태권도 시범단들이 태권도 시범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음과, 계명대학교 태권도 시범단들은 미래의 태권도 지도자의 길에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저희 계명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국에 많은 유·청소년 태권도시범단 학생들에게 계명대학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태권도를 전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동 내용

1. 계명대학교 입학설명회 및 계열별 학과(전공) 소개 이론 특강
2. 계열탐색 및 진로디자인 설계 지원
3. 계열/학과/전공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습 지원

주요 성과

총 4개 중·고교 1~3학년 561명, 교사 36명
(지역 중·고교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 지원 및 신속,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 등)

활동 소감문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참여 운영진에 대한 활동비 지급 등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음. 또한 활동 및 예산 집행 후 작성,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크게 느껴짐





KAC 세르버스 레단

<레단스쿨>



활동 내용

1) 영어 멘토링

매주 수요일 총 4개의 반에 2~3명의 멘토, 3~5명의 멘티들이 수업을 진행. 사전 테스트를 통해 멘티에게 적합한 레벨의 수업을 진행하고, 매 수업 일지를 통해 이를 기록하며, 최종적으로 사후 테스트를 통해 멘티의 성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음.

2) 사회성 발달 멘토링

- 환경오염에 관한 활동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멘티들이 단순히 재미만 느끼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고, 바른 인식을 어릴 때부터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
- 활동을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들과의 작별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편지를 작성하고 발표를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방법을 알게 됨.



주요 성과

총 13명의 아동과 1대 소수 대면 영어 멘토링

- 알파벳 복습, 영어 단어 학습, 그리고 발음 연습 등 다양한 학습 방법

총 13명의 아동과 대대 다수 사회성 발달 멘토링

- 책 읽고 소감 말하기, 환경 오염에 관련된 요소들을 활용한 리사이클링 활동

방학 중 단원역량강화캠프 진행

- ESG 경영 개념과 중요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실제 사례를 통한 실천 방법론

SDGs와 COP에 대한 인식 개선 증진 캠페인 진행

-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관련 활동을 촉진시키는 캠페인



활동 소감문

이번 기간 진행된 다양한 영어 수업과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센터에서밖에 활동하지 못했으나,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단순한 멘토링뿐만 아니라 영어라는 사회에 꼭 필요한 언어를 교육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의미가 컸던 것 같다. 또한 방학 중 진행한 단원 역량 강화 캠프를 통하여 하반기 활동을 잘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수업의 시작에서 반 이름을 정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느꼈다.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반 이름을 정하고, 규칙을 제안하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았다. 알파벳 복습, 영어 단어 학습, 그리고 발음 연습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시도하면서, 학생들이 영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시 리딩북을 활용한 독서, 끝말잇기, 동물 그림 그리기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들은 학생들이 영어

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날씨, 감정 표현, 음식, 스포츠와 같은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룬 수업은 학생들이 영어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학습 내용은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영어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단체 활동으로 진행된 ‘커피 찌꺼기 화산 만들기’, ‘수박 수영장 만들기’, ‘폐 아이스팩으로 방향제 만들기’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협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이러한 교육적인 활동을 떠나 아이들의 창의력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활동을 통하여 사회성 발달이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고,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시도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유익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미래를 밝히는 공학 캠프, 희망나무 교육 봉사단



활동 내용

1. 겨울 음악과 춤

- 곧 있을 겨울을 준비하며 겨울과 관련한 음악을 고르고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춤을 아이들과 함께 제작하는 활동을 한다. 서로 맞추기도 하고 뛰어놀며 창의력을 키우고, 춤 제작과정을 통해 협동력을 키우는 활동을 한다.

2. 디저트 컵 만들기

- 다양한 식재료를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한 뒤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맛, 먹고 싶은 맛으로 자신의 디저트 컵을 만들어본다. 디저트 컵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이 생각한 맛들을 표현할 수 있었고, 희망자에 한해서 발표를 진행하여 발표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다.



3. 아이클레이 만들기

- 아이클레이 만들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사물, 동물들을 만들 수 있었고, 실제 존재하는 사물, 동물들을 만든 친구들도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상상한 동물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색깔도 조합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주요 성과

디저트 컵 만들기, 아이클레이 만들기, 겨울 테마 음악과 춤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었고, 음악과 춤 활동에서는 겨울과 관련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각자의 표현 방식으로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디저트 컵 만들기과 아이클레이 만들기에서는 아이들이 생각한 모양들, 맛들을 직접 만들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이번 사파이어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각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동의 진행과정을 돌아보면 겨울 테마 음악과 춤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하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팀별로 회의도 하고 직접 안무도 짜면서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무를 짜면서 아이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며 동작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활동 후 발표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기 팀의 안무를 자신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한 디저트 컵 만들기 활동에서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디저트 컵 만들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각기 다른 스타일의 디저트를 만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디저트 컵을 먹어보면서 신기한 맛이 나는 컵들도 있었고, 익숙한 맛이 나는 컵들도 있었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아이들이 자신이 직접 만든 디저트 컵을 발표하면서 신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저트 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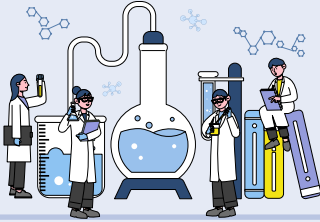
만들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색깔을 고르기도 하고, 재료를 조합해 다양한 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적 감각도 기를 수 있었고,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아이클레이 만들기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생각한 창작물들을 직접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클레이를 손으로 만지며 형상을 만들어가며 아이들은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집중하였고, 이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이를 만지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작품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공유하기도 하며, 서로 협업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활동 중간 중간에는 아이들이 지루해하거나 집중을 잃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활동이 끝났을 때는 작품을 발표하며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였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거라고 기대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친환경과 관련된 화학공학 기초 실험



활동 내용

전공융합혁신사업(EUP)에 참여하여 화학공학 지식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함. 본 활동은 초·중학생들에게 화학공학의 원리를 쉽게 전달하고, 화학 실험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데 목표를 둬. 특히, 화학 실험 인프라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및 3R(Reduce, Reuse, Recycle)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접근법을 실험 교육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반기]

• DIY 양말목 만들기

- 목표: 재활용의 가치를 전달하고 간단한 실험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림.
- 내용: 사용하지 않는 양말을 재활용해 DIY 양말목을 제작하며, 재활용 소재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고 환경 보호 실천 방안을 제시.

• LED 복극곰 광섬유 스노우볼 제작

- 목표: 유체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 화학공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
- 내용: 밀도차를 활용한 LED 복극곰 스노우볼을 제작하여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하반기]

• 바다 수제 비누 만들기

- 목표: 친환경적 재료를 활용한 화학 반응과 제품 개발 과정을 체험.
- 내용: 천연 재료로 바다를 모티브로 한 수제 비누를 제작하며, 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실용적인 결과물을 함께 경험.

• 트리펠트 친환경 가습기 제작

- 목표: 친환경 소재와 증발 원리를 활용하여 실용적인 제품 제작.
- 내용: 간단한 증발 원리를 적용한 트리펠트 가습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기획부터 설계,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팀원들과 협력하여 진행.

위와 같은 본 활동의 주제 탐색부터 재료 물색 그리고 사전 실험과 교육자료를 준비하며 실용적인 프로젝트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화학공학의 원리를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재활용과 친환경적 접근법을 강조하였음.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화학이란 사고를 심어주었고 재미와 흥미를 유발함.

주요 성과

전공융합혁신사업(EUP)을 통해 교육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함. 초·중학생들에게 화학공학의 기본 원리와 친환경적 사고방식을 전달하며 화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함.

• 교육적 성과

화학공학 원리의 전달: 밀도 차, 화학 반응, 재활용 등 화학공학의 기본 개념을 실험과 연결하여 초·중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흥미와 관심 유발: 실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화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과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 기여.

실험 교육 기회 제공: 대학의 실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여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화학 실험을 지역 학생들에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

• 사회적 성과

지역 격차 해소: 화학 실험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고, 다양한 실험 교육을 통해 과학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

환경 문제 인식 제고: 탄소중립 및 3R(Reduce, Reuse, Recycle) 개념을 기반으로 한 실험 교육을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탐구.

친환경 실천 가능성 제시: 창의적인 실험 설계와 친환경적 접근법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가능성을 전달.

• 개인적 성과

협업과 문제 해결 역량 강화: 기획, 설계, 실행, 피드백의 전 과정을 팀원들과 협력하며 높은 수준의 실험 설계와 결과물을 완성.

전공 지식의 실용적 활용: 화학공학 지식을 활용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과학과 환경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인: 화학공학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재확인하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쌓음.

이번 활동은 교육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모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며, 화학공학의 원리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함.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고와 실천 가능한 친환경적 접근법을 전달하며,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활동으로 평가됨.



활동 소감문

전공융합혁신사업 활동을 진행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학생들이 보여준 호기심과 열정이었음. 예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여하며 과학적 원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이를 자신들의 경험이나 생각과 연결 지으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학생들이 실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환경문제 해결에 과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낌.

특히, 과학적인 원리나 개념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사고 방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음. 학생들이 단순히 화학 실험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음. 실험을 통해 얻은 작은 깨달음이 어떻게 그들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과학이 실제로 사회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음을 느낄 수 있었음.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과학의 중요성과 그 실용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기회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앞으로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학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음. 이번 활동은 단순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도 큰 의미와 교훈을 남겼음. 화학공학을 전공하며 학문적으로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경험은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주었음. 학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한 이론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프로

그램 참여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됨.

더하여 탄소중립과 3R(Reduce, Reuse, Recycle)과 같은 현대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화학공학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였음. 화학공학이 그저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꼈고, 화학공학이 가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음.

전공융합혁신사업(EUP)은 협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활동이기도 했음.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부터 실험 설계, 실행, 결과물 제작, 피드백 과정까지 팀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음.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강점을 살려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음. 또한,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팀워크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음. 모든 단계에서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과정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주었으며, 이 경험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임.

결론적으로, 이번 활동은 저에게 화학공학적 지식을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학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뜻깊은 경험이었음. 또한, 이 활동을 통해 제 전공이 실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음.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화학공학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과학과 환경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 수행하고자 함.

지역 중·고등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속 소재를 활용한 재료과학 교육



활동 내용

- 2024년 7월 31일 10:00 ~ 12:00 대구 수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EUP 활동 진행함
- 강도, 경도, 인성 등 다양한 기계적 성질의 정의와 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인장시험, 압축시험, 비틀림시험 등)을 설명함
- 나노다공성 금속의 응용 가능성을 CO2 전환 촉매,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실생활 사례와 연관지어 설명함
- 2024년 12월 10일 17:00 ~ 18:30 대구 경원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EUP 활동 진행함
- 나노다공성 금속의 표면 코팅이 크리프 특성과 변형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결과를 통해 설명함
-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등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예시로 들어 설명함
- 2024년 12월 16일 16:00 ~ 17:30 대구 송현여자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EUP 활동 진행함
- 학생들이 직접 실험과 데이터를 분석하며 기계적 성질과 재료의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고 설명함

주요 성과

- 금속, 세라믹, 폴리머 등 대표적인 재료의 기본 정의와 특성을 중·고등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하며 재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함
- 거울, 핸드폰, 치아와 뼈 등 일상생활과 신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재료 관점에서 설명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증가시킴
- 신소재공학의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
- 계명대학교 신소재공학과와 지역 기업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졸업 후 진학과 취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함
- 학생들로부터 신소재공학과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으며, 학문과 직업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킴
- 본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유사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이나 학문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
- 신소재 관련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통해 향후 지역 산업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가능성을 열음



활동 소감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재료과학의 기본 개념과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소재의 특성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속, 세라믹, 폴리머와 같은 대표적인 재료를 직접 만지고 두드려보는 체험형 활동을 설계하면서, 단순히 이론 전달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재료의 특성을 몸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샘플을 만져보며 “이 재료가 왜 이렇게 단단할까?” 또는 “이 재료는 어디에 사용될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활동의 의의와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거울, 치아와 뼈처럼 학생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물품과 신체 구성 요소를 재료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주변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료가 있을까요?”와 같은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이는 교육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계명대학교 신소재공학과와 지역 기업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향후 진학 및 취업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재료과학의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진로를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아가,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통

해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일부 활동에서 시간 부족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나, 학생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체험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험 도구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계획한 내용을 모두 실현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향후 비슷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 전공 지식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응을 보며 재료과학이라는 학문이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료과학의 가치와 재미를 전달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이 재료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활동은 그 시작점이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창중학교와 뮤지컬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 내용

4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목표로, 각 팀원의 역할 분담과 조별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음악과 안무를 지도하며, 뮤지컬 제작의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을 경험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가창중학교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출강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으며, 출강 기간 동안 학생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보람찼습니다. 가창중학교의 선생님들과의 협력은 프로그램을 보다 원활히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활동 후에는 합평회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하반기 활동 계획에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심화하고, 자체 개발한 콘텐츠를 시연하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적극적인 참여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성과

이번 프로젝트는 학과생들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교육 방식을 구현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창중학교와의 협업은 인근 대학의 희망 학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이 지역 대학과 전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학교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 방학 기간에만 활동을 집중해야 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에도 활동이 이어진다면, 보다 지속적이고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교육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활동 소감문

이번 '가창중학교와 뮤지컬 만들기 프로젝트'는 인문예술 정신 확산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중학생들에게 뮤지컬 제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공 역량을 활용한 교육봉사, 교육 격차 해소, 대학 희망학과 접근성 증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느낀 점과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표는 전공 역량을 활용한 교육봉사 경험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뮤지컬 제작이라는 창의적인 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음악, 연기, 스토리 구성 등 다양한 뮤지컬 제작 과정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술적 접근성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질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교육 방식을 고민하면서 전공 이해도를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멘토-멘티 기회를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참여한 중학생들 중 다수는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이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멘토로서 학문과 전공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진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꿈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며 이 활동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지역 대학 희망학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대학에서의 학문적 경험과 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학문적 흥미를 유도하였습니다. 뮤지컬이라는 친숙한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

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들이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학업과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은 나눔을 통한 배움의 선순환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중학생들과 소통하며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전공 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교육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공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문적 관심을 유도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교육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장을 발판 삼아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극뮤지컬이 함께하는 행복두드림교실



활동 내용

▶ 교육연극 이해

현 교육연극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의 강연을 통해 교육연극의 이해도 향상, 교육연극 수업계획안 작성 방법, 피드백 진행

▶ 교육연극 수업 계획안 작성 및 피드백

▶ 연극놀이 제작 및 시연

수업계획안의 작성내용을 토대로 연극놀이 제작 후 연습, 재료 사용하여 모의시연 진행, 서로가 서로의 학생이 되어 현실적인 피드백 제공 후 개선

▶ '행복두드림 교실' 진행

대구 중앙초등학교 '행복두드림 교실'을 진행하여 실제로 계획한 연극놀이, 교육연극 수업을 진행하였음.

▶ 연령대별 연극놀이 제작 및 시연

하반기 활동으로 각 학년별 알맞은 연극놀이 제작하여 시연 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짐.

주요 성과

▶ 교육연극의 이해 증진

교육연극 분야의 전문가 강사의 강연을 통해 교육연극의 기본 개념과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음.

▶ 수업계획안 작성 능력 향상

교육연극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는 실습을 통해 연극놀이와 교육적 목표를 연계하는 방법을 배움.

다양한 수업의 구성 요소(목표, 주제 등)를 반영하여 구체적, 실행 가능한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됨

▶ 연극놀이 제작 및 시연

수업 계획안을 바탕으로 제작한 연극놀이를 시연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이를 개선할 기회를 가짐.

[종합 성과]

교육연극의 이론적 이해와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 연극 수업의 효과적인 설계 및 실행 능력을 배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이번 EUP 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만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연극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찰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저에게 교육연극의 매력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교육연극이란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강사님의 강연과 다양한 수업을 통해 교육연극이 학생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창의적 사고와 감성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계획안을 작성하며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연극의 목표와 활동을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만드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이를 실제 연극놀이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복두드림 교실'을 통해 대구 중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경험은 그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반응을 어떻게 끌어낼지, 연극놀이가 교육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연극의 강력한 잠재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업을 어떻게 개선할지, 학생들의 개별적인 반응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활동에서는 연령대별로 적합한 연극놀이를 제작하고, 이를 동료들과 함께 시연하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았습니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놀이를 만들고 개선하는 과정은 매우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저는 교육연극이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적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연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달서구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활동 내용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연 프로젝트로,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춤과 음악 장르를 선보이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문화 체험을 제공한 행사로 장기동 먹거리촌, 무지개공원, 모다아울렛, 월광수변공원 등 여러 장소에서 열린 공연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돋보였고, 이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댄스와 음악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나는 에너지와 즐거움을 전달하며, 각 공연장마다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환호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그로 인해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모다아울렛에서는 쇼핑을 즐기러 온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장기동 먹거리촌과 무지개공원에서는 주민들이 공연을 즐기며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창의적이고 활기찬 활동을 지역 사회와 나누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주요 성과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목표인 지역 상권 활성화를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기동 먹거리촌, 무지개공원, 모다아울렛, 월광수변공원 등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방문객과 주민들이 공연을 즐기면서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다음으로는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춤과 음악 공연을 선보였고,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공연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실력을 지역 사회와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관

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응원은 공연의 성공적인 진행을 이끌어냈다.

또한,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을 제공하면서도, 상업적인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모다아울렛에서는 공연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며, 쇼핑과 문화가 결합된 경험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문화 공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원 주변 상권과 아울렛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적 기여했다.



활동 소감문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목표인 지역 상권 활성화를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기동 먹거리촌, 무지개공원, 모다아울렛, 월광수변공원 등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방문객과 주민들이 공연을 즐기면서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다음으로는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댄스와 음악 공연을 선보였고,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공연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실력을 지역 사회와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응원은 공연의 성공적인 진행을 이끌어냈다.

또한,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을 제공하면서도, 상업적인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모다아울렛에서는 공연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며, 쇼핑과 문화가 결합된 경험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문화 공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원 주변 상권과 아울렛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적 기여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연의 기획과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공연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대 구성, 공연 내용, 관객과의 소통 등 여러 요소가 잘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연이 단순히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문화가 지역 경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공연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관객들의 미소와 환호 속에서 그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달서구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지역 사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적 경험을 나누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기여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계명 엘 시스테마



활동 내용

체계적인 소그룹 수업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3명의 선생님들과 3반으로 구성되어 지도하였다.

1학기는 악기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악기의 원리와 기본자세에 대해 공부하고 악기를 다루며 친숙해질 수 있었다.

2학기는 악기의 재미를 알고 음악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악기뿐만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도 하였다.

12월 10일에 있을 연주회를 위해 개인곡과 단체 곡을 함께 선정한 후 수업과 연습 진행했다.

주요 성과

목표가 생기니 학생들이 스스로 잘 하려 노력했고,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따라와 준 덕분에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았다.

개인이 원하는 곡을 직접 고르니 더욱 즐거워하는 모습에 부딪함을 느꼈다.

많지는 않은 수업 일수였지만 학생들과 함께 엘시스테

마 수업 시간을 기대하며 즐거워했던 마음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

엘시스테마 프로그램은 연습을 통해 인내심, 그리고 연주를 통한 성취감을 배우고 함께 맞춰가는 협동심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아이들의 미래에 목표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기대된다.



활동 소감문

계명대학교의 좋은 사업의 취지와 신서초등학교의 친절한 선생님들 덕분에 많지는 않은 수업 일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가는 발걸음이 따뜻했다.

한 반에 바이올린을 처음 잡아보는 학생과 이미 악기를 접해 본 학생이 같이 수업을 받아서 어떻게 그룹 수업을 진행하고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좋은 수업을 해주고 싶어서 조바심도 많이 났었던 것 같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어려워하는 친구들과 잘 하는 친구들이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서로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이끌어주고 도와가면서 수업 받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부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준 덕분에 연주회까지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실 별 탈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얻는 보람이 그 고생을 치유해 줬다. 장난꾸러기 친구들도 많았지만 연말에 있는 연주회를 위해 놀다가도 집중하는 학생들 모습에 기특하고 부듯했다.

음악적 지식을 얼마나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한 것 같다.

한 번에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습관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최대한 천천히 기초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뜻대로 안되어 눈물 보이는 날도 있었고, 서로에게 칭찬이 쏟아졌던 시간도 보내면서 내가 가진 지식을 공유하고 아이들에게 흡수시키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악기만 가르치는 게 아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했고, 아이들과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열심히 한 보람도 결과에 대한 욕심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욕심이 나는 만큼 아이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듯 더 욕심내어 연습하는 모습에 감사했다. 팔 아프면 쉬다 해도 된다는 말에 괜찮다며 더 연습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모습에 또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다. 신서초등학교 수업을 통해 느낀 것은 가르치는 것을 넘어 내가 가르침을 받고 본받을 수 있던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덕분에 많은 성장을 했고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다.



문화소외계층 도자 예술체험 프로그램



활동 내용

〈문화소외계층 도자 예술체험 프로그램 진행〉

1. 도판기를 이용하여 얇게 민 흙을 준비한다.
2. 체험자 인원수에 맞춰 준비를 한 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3. 다양한 접시 모양 석고틀을 준비해 그 위에 얇게 민 흙 판을 올려둔다.
4. 모양대로 맞추어 눌러가며 형태를 잡는다.
5. 도자기용 색 도구(물감)를 이용하여 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을 한다.
6. 석고틀에서 흙을 분리한다.
7. 접시 완성 후 남은 흙 판을 사용하여 고양이 틀로 찍어내어 키링과 뱃지를 완성시킨다.

주요 성과

도자기 접시를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체험자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문화소외계층에서는 자신감을 얻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성과를 얻었다.

도자기 작업은 집중을 요하며, 창작 과정에서 얻는 평온함과 안정감은 정신적인 치유 효과를 제공하였다.

문화소외계층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이는 정신적인 회복과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도자기 접시 만들기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체험자들은 디자인, 형태, 색상 등을 결정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



활동 소감문

이번 도자기 접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감정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화소외계층 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은 단순히 도자기를 만드는 활동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체험자들 대부분이 어색하게 시작을 하였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각자의 개성과 감정이 담긴 접시들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체험자 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고,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아 부듯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신중함과 인내를 요하는 작업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자아 존중감의 향상이었습니다. 많은 체험자 분들이 처음에는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지만, 접시를 완성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낸 작품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커졌습니다.

도자기 작업이 그들에게 단순한 취미나 예술이 아닌,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접시 만들기는 단순히 손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치유를 가져오는 활동임을 실감했습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체험자 분들이 이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자 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그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넘어,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그들이 손에 들고 온 도자기 접시는 그저 하나의 예술 작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었던 순간의 상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게도 예술을 통한 치유와 성취감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이 계속해서 확대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뚜비 캐릭터 활용 일러스트와 웹툰제작



활동 내용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뚜비 캐릭터 활용 일러스트와 웹툰 제작'을 주제로 이루어진 활동은 수성구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활동으로써 진행됨. 4월부터 8월까지의 뚜비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일러스트 5점과 머그컵, 열쇠고리, 스티커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을 제작하여 수성구의 매력을 전달.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는 수성구와 대구경북진흥원의 협업을 통해 들안예술마을과 예술교육사업을 소개하는 이미

지툰 9편을 제작하고, 해당 활동을 널리 홍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팀원들은 학교 내에서 주기적인 회의와 피드백을 통해 각자의 작업을 발전시켰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2024년 동안 총 17회의 대면 회의와 다수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주요 성과

대구 수성구의 상징 캐릭터인 물망이와 뚜비 캐릭터를 활용하여 고유한 디자인의 일러스트 액자 5점과 머그컵, 열쇠고리, 스티커 등의 다양한 문화 상품을 제작하며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함. 특히, 학과 내 과제전 전시 기간과 미술 대학 내 주요 행사인 아트페어 등에 제작한 문화 상품을 틈틈이 전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대 효과였던 관광객에게 호기심 유발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또한, 2학기에 제작한 이미지툰 9편은 예술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함. 추가적으로 이미지툰 제작 활동은 이 또한 기대 효과대로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큰 역할을 한다.

제작한 문화 상품들과 일러스트 등이 2024년 한 해에 걸친 프로젝트 결과물로써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성구와 들안예술마을의 교육 사업 홍보에 더 큰 역할로써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활동 소감문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두비 캐릭터 활용 일러스트와 웹툰 제작'을 주제로 웹툰과 전공을 살려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성구와 대구경북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비 캐릭터를 활용한 일러스트와 웹툰 제작은 단순한 디자인 작업을 넘어서, 지역 문화와 예술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업이라 생각하며 임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두비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일러스트 제작과 문화 상품 개발이었습니다. 한 학기 간 진행된 이 작업에서는, 두비 캐릭터를 이용해 5점의 일러스트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머그컵, 열쇠고리, 스티커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을 디자인했습니다. 제작을 진행하면서 두비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 상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수성구의 이미지를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다양한 두비 캐릭터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1학기 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2학기에는 인스타그램 제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제를 선정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수성구 대구경북진흥원과의 면담을 통해 들안예술마을의 예술교육사업을 홍보하는 9개의 주제를 받으면서 작업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구에 살면서도 몰랐던 들안예술마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특히 이곳이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교육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예술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스타그램 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들안예술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홍보하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



도록 친근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툰을 제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손쉽게 전할 수 있는 SNS용 이미지툰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결과물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중요한 점은 팀워크와 책임감이었습니다. 대면 회의와 온라인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고, 각자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범위에 부담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 간의 협업이 얼마나 중요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협업의 중요성과 책임감에 대해 알려주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두비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일러스트와 문화 상품들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 수성구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아 지역 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작업에 계속 참여하고, 지역 문화와 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함께 일하는 다문화 동화책 만들기



활동 내용

<베트남 동화책_초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주제로 한 '다름을 인정해요'는 창작 동화로써 스토리를 구상하는데 팀원들끼리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다. 주제와 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로 통일이 되었지만, 사소한 설정이나 전개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보였다. 하지만, 다들 곧잘 해결하여 서로의 꽃이 더 예쁘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는 두 부족이 마을을 대표하는 나무가 시들게 되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화를 만들게 되었다.

각색 동화는 베트남의 전래동화인 '반쯔반짜이'에 한국적 요소를 추가하여 동화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전래동화에 어떤 한국적 요소를 넣을지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음식이라는 주제에 맞게 한국의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는 주제로 결정하게 되었다.

<미얀마 동화책_중급>

미얀마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정보가 적어서 미얀마를 이해하는 것 자체부터 약간의 힘들이 있었다. 그러나, 같이 동화

책을 제작하는 학우 중에 실제 미얀마 유학생이 있었고, 그 학우를 통해 미얀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미얀마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얀마의 역사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이해하고 배우며 미얀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했다.

창작 동화를 구상하는데 의견이 많아서 조율하는 것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고민하던 두 이야기를 합한 창작 동화를 만들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학우들이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스토리가 아닌,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잘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교훈을 주는 의미있는 동화를 구상하였다.

미얀마의 전래동화가 많이 없고 대표하는 전래동화도 잘 없어서 동화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미얀마 유학생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전래동화를 찾게 되었고, 각색 동화는 미얀마의 전래동화인 '천국을 만든 평과 까마귀'에 평과 까마귀를 한국과 미얀마를 대표하는 새인 까치와 공작새를 넣어 스토리를 각색하였다.

주요 성과

동화책에서 이해 교육이 가능하고, 동화책을 바탕으로 제작한 학습 자료를 통해 쓰기과 말하기 교육을 제작하면서 전공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었다.

총 두 권의 동화책을 제작하였다. 하나는 베트남 다문화 학생을 위한 책, 하나는 미얀마 다문화 학생을 위한 책이다. 각각의 스토리 모두 베트남 유학생과 미얀마 유학

생이 참여하여 스토리를 구상하였고, 창작 동화 하나, 각색 동화 하나로 진행하였다. 유학생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배려한 적은 있어도, 다문화 아이들을 이해할 기회는 적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문화 아이들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공감과 배려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 소감문

〈베트남 동화책_초급〉

‘동화책’을 제작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꽤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동화책을 제작하면서 부담감보다는 즐거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평소 다문화 학생들에게 차별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 동화책 제작을 통해 사소한 것들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작 동화를 제작할 때 팀원들과 크고 작은 충돌들이 있었지만,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금방 멩칠 수 있었고 그 결과 학우끼리도 원활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분명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의 생김텐데 그 속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한국 사회에 잘 어울려서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얀마 동화책_중급〉

동화책을 직접 제작해본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며,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하여 제작하는 것임에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학기 중 매주 팀원들과 함께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스토리를 구상할 때, 때로는 이야기가 술술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뒷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해야할까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각색동화를 제작할 때, 무엇보다 미얀마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동화 속에 자연스럽게 잘 반영되길 바랐으며, 서로의 문화를 바라보며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전하는데 목표하였습니다. 또한 창작동화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또한 우리 사회의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동화를

제작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어휘 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미얀마 팀원 모두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잘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학습 자료〉

동화책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자료를 제작하였는데, 학습자의 수준별 난이도를 생각하여 학습지를 제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인 학습자가 아니라 어리다는 점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습지를 참고하고 많은 조사 끝에 적당한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국어 교사로서 꼭 필요한 자질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교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와 신박한 내용으로 학습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자료를 만드는 스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흥미있고 재미있는 학습 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너무 문제풀이만 가득하지 않고, 적당히 재미있는 요소를 섞어서 학습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 자료 제작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유학생 혹은 다문화 가정 등 여러가지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의 한국어 교사들에게 그 문화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봉사동아리 '사랑그리기'와 함께 "사랑" 그리기



활동 내용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활동한 '줍깅봉사'는 평일 공강시간에 계명대 대학로 또는 주변의 큰 공원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며 참여 인원들과 활동지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동하였습니다. 또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유기견인식개선 캠페인활동'도 함께 진행하며 줍깅봉사 활동도 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달서가족축제에 '페이스페인팅'부스로 참여하게 되어 재능을 나누며 지역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벽화봉사'도 문양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려져 더러워지고 지금의 분위기와

맞지 않은 노후된 벽화를 새롭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대표님과 직접 의논하여 벽화에 로컬푸드에 대한 의미를 담았고, 기획부터 벽화 디자인, 채색의 모든 과정을 모든 참여인원이 알고, 직접 활동하면서 지나가시던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뿌듯함을 느끼고, 자신의 새로운 재능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업사이클링 공예품을 만드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쓰지 않는 목걸이나 팔찌의 비즈들, 머리방울을 활용하여 키링도 만들고, 환경 문제에 대해 알리며 더욱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방법을 인지하게 해주었고, 버려지는 양말의 고무줄 부분(양말목)을 재 활용하여 키링이나 코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성과

'줍깅봉사'를 통해 참여인원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활동을 통해 충격적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깨끗이 청소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몇 일 지나지 않아 다시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환경 보호 인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참여인원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학기초에는 신입생 회원들이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많이 적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페인팅', '벽화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동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활동한 것이 결과적으로 바

로 보여지면서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들은 참여인원들에게 자신의 작은 재능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업사이클링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줍깅봉사 외에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참여인원들에게 흥미롭게 인식이 되면서 만들기 활동에서 더 나아가 환경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활용하여도 다른 봉사활동까지 기획하여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견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활동 소감문

2024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EUP)에 참여하게 된 큰 동기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이전에는 활동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재정적인 부분의 한계를 조정하면서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오직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벽화봉사'는 재정적 한계로 늘 부족한 재료들로 최소한의 디자인과 채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활동에서는 벽화를 진행하는 문양역 코걸푸드직매장의 대표님의 니즈를 충분히 듣고, 벽화에 그 의미를 담아 디자인도 채색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에 집중한 만큼 참여 인원들과 활동하면서 소통하였던 지역 사회의 피드백이 더 긍정적이라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진행했던 활동들 외에 새로운 활동들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줍깅봉사'를 통해서 직접 쓰레기를 주우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깨닫고 얻는 것들도 크지만, 이번에 새롭게 진행했던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를 통해서 참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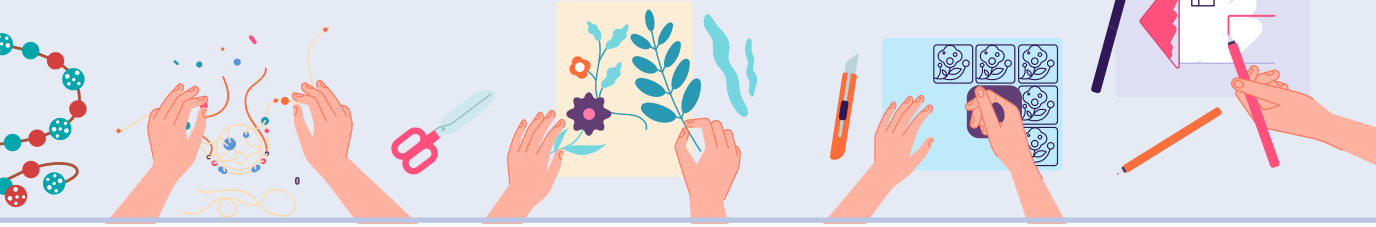
원들에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말목을 이용하여 키링이나 코스터를 만드는 활동을 할 때, 이전에 양말목으로 안마봉을 만들어 센터의 어르신분들에게 드렸던 봉사활동을 이야기해주었더니 참여인원의 반응이 좋아 이후에 봉사활동을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했던 것처럼 진행하고 싶었으나 상황이 안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던 참여인원이 먼저 반응을 보이니 꼭 다음에는 봉사활동으로 연계하여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활동까지 계획하며 새로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전공융합혁신사업(EUP)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친절히 다시 안내해 주셔서 활동을 잘 진행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새 벚을 구하다



활동 내용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어느샌가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딱딱한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그에 따라 독서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서관에 놀러 간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고 가연 재미있는 활동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즐길만한 만들기 활동을 중점으로 했는데, 만들기는 총 5가지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소원팔찌 & 비즈팔찌 만들기를 하였다. 여름에 실시한 활동인 만큼 반팔에 어울리는 악세사리를 직접 만들어보고 나만의 모양으로 커스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레진 키링 만들기를 하

였다. 레진 키링 자체가 집에서 하기엔 뒤처리도 곤란하고 사기에 재료도 많이 들어 부담이 큰 만큼 어린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뒤이어 옛날 책 만들기 프로그램도 하였다. 오침 제본이라는 옛 방식을 이용하여 직접 책을 만들어보도록 하는 활동이었는데,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가장 걸맞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직접 나만의 책을 만들어보며 도서관에서 내 책이 생겼다는 기분을 줄 수 있었다. 다음은 무드등 만들기를 하였다. 시기가 실내에서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서 실용적인 만들기를 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은 북퍼품을 통해 도서관에서 책이라는 물건에 향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성과

팬데믹 상황 이후 새벗도서관의 이용자가 월에 100명 이내일 정도로 상당히 저조했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겨우 데스크를 운영했던 터라 만들기 프로그램이나 리터러리 교육같은 발전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공융합혁신사업(EUP) 사업을 통해 지원금과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의 전공지식을 잘 활용하여 신선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특히 만들기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디어는 많지만 현실적인 예산 문제에 부딪혀 쉽게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새벗도서관에서 실시하여 새로운 이

용자가 한 번 방문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존 이용자들은 주변 지인에게 입소문을 내며 이용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월에 100명 이내일 정도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던 새벗도서관이 12월 즈음에는 주마다 7~80명이 방문하고 책 대출 수도 훨씬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벗도서관 관장님은 이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대출 반납 방식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양질의 프로그램 연구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만들기 프로그램이나 리터러리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추후 도서관에서 실시할 프로그램에 대한 이정표 역할도 할 수 있었다.



활동 소감문

허은 : 처음엔 같은 과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부담도 되고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회의를 통해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자신감을 얻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도서관 이용자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사서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현정 : 전공융합혁신사업에 참여하며, 도서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활동하였다. 팀 내에서 각각의 부서를 나누고, 해당 부서에서 활동하다가 여러 요인으로 다 같이 활동하는 등 팀 활동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실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같이 협업하는 등 좋은 경험을 하였다. 특히 도서관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이용자의 가까이에서 의견을 나누며 해당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있어 좋았다.

백다운 : 전공 지식을 살려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일년이라는 시간은 막막하기는 하였어도 활동들을 해보고 수정해 나가며 지역에 내 역량을 어떻게 이바지 할지 알아갈 수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회차가 갈수록 노후가 생겨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나의 또다른 자원이 되었다.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시행하는 일이 조금은 쉬워졌다. 다른 기관과 협력해 본다는 것이

뜻깊은 활동이 되었다.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며 지역을 알아갔고 상생하는 방법을 배웠다. 다음에는 이러한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조수아 : 전공과 융합하여 지역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한 것은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본 적도 처음이고, 총무라는 역할을 맡았던 것도 처음이었다. 처음이라 약간은 서툴렀던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EUP 활동 경험으로 인해 프로그램 기획력과 정산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어 감사했고,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기에 굉장히 뿌듯했다.

김동욱 : 난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활동들을 준비하면서 힘든점도 많았고 집에 가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면 재미있었고, 여러모로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해보지 못하였을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계명대학교 학생들 특히 우리 학과 25학번 신입생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다.

양원준 : 전공융합혁신사업을 통해 전공지식을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고,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초기에는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계속하여 피드백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마주했을 때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후 주거시설 환경개선



활동 내용

- 대구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수행.
- 노후된 주거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후 개선 방향 설정.
-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엌 바닥 높이 조정, 장판 교체, 데크 설치를 포함한 리모델링 작업 수행.
- 벽과 화장실 타일 페인팅 작업을 통해 주거 공간의 위생적이고 밝은 환경 조성.
- 화장실 수전 교체와 내부 정리를 통해 주거 공간 기능성 향상.
- 실내 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한 장판 교체 및 목재 작업 진행.
- 냉장고 내부 청소, 선반 재조립 등 실내 공간 정리 작업 수행.
- 작업 후 청소 및 정리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

주요 성과

-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 - "섬김과 나눔" 정신을 실천.
- 전공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며 실질적인 경험 및 문제 해결 능력 배양.
-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축적.
-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으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의 기반 마련.
-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하고 "진리, 자유, 사랑"을 실천.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대구신문을 통해 긍정적 사례로 주목받음.





활동 소감문

이번 전공융합혁신사업(EUP)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바꾸는 작업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환경은 단순히 생활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안전과 안정, 그리고 일상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활동의 과정에서 우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단순히 노후화된 문제를 넘어, 그들의 일상과 삶의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편부모 장애아동, 92세 독거노인(할머니)의 각 가정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개선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낡은 바닥을 교체하고 낮타이를 조정하는 작업, 생활 편의를 위한 공간 정리와 기능적 수리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더 큰 안정감과 희망을 심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체감했습니다.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삶의 안정성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배운 지식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사회적 책임과 협력의 중

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앞으로의 학업과 실무에도 큰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건축공학과 모두가 이러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봉사활동을 넘어서, 우리 자신과 팀,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이면 분명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침산동 탄소중립 복합문화마을 만들기



활동 내용

침산동 탄소중립 복합문화마을 만들기 자체 회의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총 8회의 내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주민 참여를 유도할 방법, 교육 프로그램 기획, 활동 일정 조율 등을 다루며 각 단계별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침산오봉협동조합과의 협력 회의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침산오봉협동조합과 3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협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속 가능 탄소중립 주민 전달 활동

- **주민 교육:** 주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방법과 관련된 교육을 3회 진행하였습니다.

1회차: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잘떼스티크와 커피박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제공.

2회차: 탄소중립 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

3회차: 침산동 내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버드피더를 만들어 생태계 보전에 기여.

- **메이커펀스타 부스 운영:** 대구 메이커펀스타에서 주민 50명 이상이 참여한 커피박 키링 제작 체험 부스를 운영.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 **자연 탐사:** 침산동 자연 환경 탐사를 2회 진행하며 생태계를 관찰하고 기록한 후, 이를 주민들에게 공유하여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탄소중립 복합문화마을 만들기 실천 활동

지역 미화를 목표로 탄소중립 벽화 채색 작업을 5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벽화를 완성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조성의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의 시각적 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 지역 주민의 탄소중립 인식 제고

3회에 걸친 주민 교육과 자연 탐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향상.

- 참여형 활동으로 주민 참여 확대

메이커펀스타 부스 운영과 커피박 키링 제작으로 50명 이상의 주민이 직접 활동에 참여.

-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

침산오봉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활동의 효과성을 증대.

- 지역 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문화 조성 기여

벽화 채색 작업을 통해 침산동 지역 환경 미화를 실천하고 주민들의 탄소중립 마을 조성에 대한 관심 유발.

활동 소감문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침산동 탄소중립 복합문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많은 깨달음과 성과를 얻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팀원들과의 협업,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그리고 침산동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총 8회의 내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회의에서는 주민 참여를 유도할 방법, 교육 프로그램 기획, 활동 일정 조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침산오봉협동조합과의 3회 이상의 협력 회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 활동은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3회에 걸쳐 진행된 주민 교육은 주민들이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회차에서는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잘때스틱과 커피박 활용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2회차에서는 탄소중립 포인트 시스템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실제로 회원가입과 활용 방법을 함께 진행하며 실질적인 실천을 유도했습니다. 3회차에서는 침산동 내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며 주민들과 함께 버드피터를 제작하고 설치하여 생태계 보전에 기여했습니다. 메이커페스타 버스 운영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커피박 키링 제작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50명 이상의 주민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체험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원 순환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쉽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침산동 자연 탐사를 2회 진행하며 지역 생태계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탄소중립 복합문화마을의 상징적인 활동으로 진행된 벽화 채색 작업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침산동의 시

각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벽화를 완성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벽화에는 탄소중립의 메시지와 자연 친화적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였으며, 이끼를 활용한 독창적인 접근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실천 방법을 배우며 실생활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참여형 활동을 통해 주민 참여가 확대되었고,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팀원들과의 협업과 침산오봉협동조합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은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은 제게 큰 성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민 참여 활동에서는 더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접근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고, 자연 탐사와 같은 활동에서는 기록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벽화 작업의 유지와 관리 방안을 사전에 더 면밀히 계획했다면 장기적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침산동 탄소중립 복합문화마을 만들기의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환경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게 환경공학 전공자로서 배운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 조성 프로젝트



활동 내용

1. 하중도, 대구시 유휴지 등 식재 실습

정원 디자인과 선정

각 학생이 개별적으로 디자인한 정원 안을 제출하였고, 해당 디자인 중 가장 적합한 안을 선정하여 실습의 기초로 삼았다.

디자인과 시공 간의 차이점 고려

실제 현장에서의 환경 조건과 초기 디자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식재할 수종을 재선정하였다.

현장 식재 실습

선정된 식물들을 하중도의 환경에 맞게 배치하고, 단계적인 시공 과정을 직접 수행하였다. 식재 시 고려해야 할 토양 상태, 수분 공급, 햇빛 조건 등을 현장에서 학습하며 시공 능력을 강화하였다.

2. 애망장애영아원 정원 조성

답사를 통한 현황 파악

기존의 유휴지와 식생 상태를 조사하며, 제거가 필요한 식물과 새롭게 식재할 공간을 확인하였다.

학생 디자인안 선정 및 피드백

학생들이 제출한 식재 계획안 중 우수작을 선정하였으며, 애망원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식재안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개선하였다.

정원 조성 및 시공 실습

선정된 식재 계획을 바탕으로 정원을 실제로 조성하였다. 시공 중 예상치 못한 환경적 요인을 해결하며 실질적인 시공 기술을 습득하였다.

주요 성과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정원 조성을 경험하며 개인별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중도에서 진행된 실제 식재 실습은 학생들에게 설계와 시공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설계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각 학생이 디자인한 정원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이를 현장에서 시공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체험했다. 또한, 방치된 유휴지를 정원으로 조성하여 하중도의 경관을 개선하였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애망장애영아원에서의 정원 조성은 유휴지를 활용하여 장애영아와 시설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학생들은

애망원 관계자와 협력하여 정원 설계안을 개선하고, 식생 조사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실제로 정원을 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아들이 식물과 상호작용하며 자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식물과 환경이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활동 모두 학생들에게 계획, 설계, 시공, 관리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며 실질적인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방치된 유휴지를 경관적, 기능적으로 개선하면서 지역 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 및 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조경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키웠으며, 이론과 실무를 융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활동 소감문

• 애망원에서 진행한 EUP 학교 사업의 정원 가꾸기 활동은 장애 아동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자연과의 교감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정원 가꾸기를 통해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식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저희 학교 학생들은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과정은 그들에게 큰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들이 자연과 연결되고,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둘째, 협동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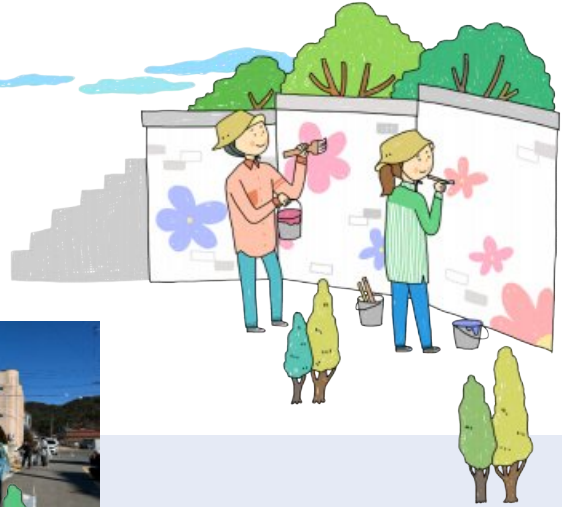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원 가꾸기 활동은 저희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식물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자극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동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망원에서의 EUP 학교 사업을 통한 정원 가꾸기 활동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연과의 교감, 협동과 소통, 책임감과 인내심, 그리고 창의성 발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은 더 나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 정원조성을 하면서 지면, 토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식재를 위해 땅을 파는데 큰 돌과 다른 야생 잡초들의 뿌리로 인해 식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었다. 또한, 식재하는데, 추가의 토양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마사토가 없었으면 제대로된 식재를 하지 못할 뻔했다. 정원 조성을 통해, 식재하는데 마사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조성 전엔 상상하던대로 순탄할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론 헤아려야 할 것이 많았다. 그 과정으로 인해, 부딪힘을 느꼈고 다음에도 정원 조성에 참여하고 싶다. 소수 인원과 했다면 식재하기에 버겁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을 것 같다. 여러 사람들과 하니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런 시간이 즐거웠기에 조성하는 것도 재밌게 느껴졌다. 항상 수업시간에 듣던 조성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재밌고 신기했다.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마을 벽화 그리기



활동 내용

- ① 박곡리 현장답사 및 이장님과 인터뷰 (전체적인 벽화 컨셉트 설정)
- ② 실질적인 도안 구상을 위한 리서치 및 이미지 조사
- ③ 도안 1차 디자인 회의 (팀원들의 디자인 아이디어 회의)
- ④ 도안 1차 제작 및 수정 (각자 역할 분담)
- ⑤ 도안 2차 수정 (도안 수집 및 합성)
- ⑥ 도안 완성 (최종 도안 완성 및 지도교수님 컨펌)
- ⑦ 벽 닦기 및 건조작업 (지도교수님과 현장 확인)
- ⑧ 흰색 바탕 작업 및 보수 건조
- ⑨ 외벽 스케치 및 드로잉 (지도교수님과 현장에서 스케치안 조율)
- ⑩ 컬러 페인트 작업
- ⑪ 캐릭터별 외곽선 페인트 및 마카 디테일 작업
- ⑫ 최종 보정 및 수정작업 (완성)
(마을 이장님, 마을 대표, 지도교수님, 팀원 현장사진 촬영)



주요 성과

- ① 같은 전공 학우들과 함께 박곡리 마을에서 진행한 벽화 프로젝트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와 팀워크를 발휘해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② 벽화 작업을 통해 선후배 간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으며, 작업 과정에서 나눈 대화와 협업이 학과 내 우

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 ③ 박곡리 마을의 오래되고 쓸쓸한 외벽에 '지브리 영화'의 산뜻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담은 벽화를 그려넣어, 마을 분위기를 밝고 활기차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심어주고, 마을의 매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 소감문

도시의 빠른 흐름과 끝없이 들려오는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예술을 창작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박곡리 마을의 고요한 풍경과 맑은 공기는 마치 새로운 창작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문과 같았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풍경 속에서 작업하는 동안 마음이 정화되고 평화로워졌으며, 이는 내 창의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나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예술을 통한 특별한 영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는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주민들은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의 역사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예술이 단순한 창작의 도구를 넘어 진정한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낡은 외벽에 벽화를 그리는 동안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며 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벽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와 마을 주민들 사이의 연결 고리가 되어 주었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스타일을 가진 팀원들과 협업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얻은 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익혀 갔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그 갈등마저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며 각자의 장점을 결합해 나가는 동안 팀워크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단순히 한 사람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어우러진 결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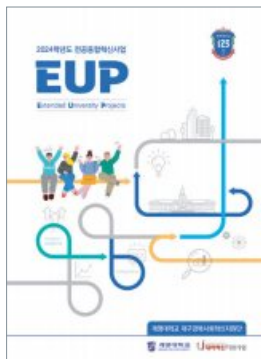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예술 창작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환경과의 조화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작업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벽화 작업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할 기회가 되었으며, 예술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은 나의 시각을 한층 더 넓혀 주었습니다. 지역사회와 교감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드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술이 단순히 개인의 표현을 넘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소통의 도구이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넘어, 나에게 사회적 협력과 변화를 경험하게 해 준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주민들과의 교류와 협업, 그리고 창의성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앞으로의 삶에서 예술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발행일 2025년 02월

발행인 주은정 /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발행처 계명대학교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행정팀(바우어관 1201호)
Tel. 053) 580-6693

기획·디자인 한빛기획인쇄시스템 Tel. 053) 253-4542

2024학년도 전공융합혁신사업

EUP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